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52호

내면과 외면의 평화를 수행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2. 4. 10.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40

이 세상에 살면서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도처에는 억압과 폭력, 나쁜 영향,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술하게 많기 때문에 때로는 내면의 평형과 평화로운 태도, 평화로운 정신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유일한 희망은 매일 명상함으로써 신을 기억하고 내면의 전능한 사랑의 힘을 일깨우려 노력하는 길뿐입니다. 그게 바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목적이지요.

하루에 최소한 한 시간만 관음을 해도 마음의 평형을 이루고 기분이 편안해져 자신의 성미를 다스리고 내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치유법 외에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다른 기질과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대해야 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돕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 명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친다면 세상이 평화롭고 자비로워지기 때문이지요.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의 다수만이라도 그렇게 평화롭고 자비로운 태도를 지닌다면 세상은 위협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이 평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평화롭고 자비롭게 만들 테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평화를 논하는 회의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이번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돼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전 인류가 단결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서로를 사랑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례

앞표지 안/ 12 스승님 말씀

내면과 외면의 평화를 수행하라/
영적 에너지는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2 다채로운 이벤트

스위스/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미국/ 네팔/
태국/ 홍콩/ 포모사

4 행사 메모

11/ 37/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CD

12/ 25 감로벌어

나눔/ 성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13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행사

엘리트 시민을 배출하는 관음법문
- '전국 10대 기술인 모범 상' 수상자
리종량 사형과의 단독 인터뷰

15 매체 보도

클릭할 때마다 기아민에게 음식을 보내는 사이트

16 신기한 감응

수행의 길을 두루 안내해 주시는 스승님/
스승님이 해주신 수술/
깨달은 스승을 한 번이라도 보면 해탈한다/
두 살배기 꼬마의 뽀뽀

19/ 38 수행 일화

은근한 일깨움으로 담배를 끊게 하시다/
가장 귀중한 체험

19 시

참사랑

2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꿈과 수행

26 사제지간의 편지

고통스런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다/
시기 적절한 스승님의 선물

28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업장의 무게

30 제일선에서

사랑의 바다, 2004 미국 도서 박람회로 돌아오다/
황금시대 원년에 진리의 길을 밝히다

34 당신은 모르실 거야

도마 복음서-고대와 현대 스승의 가르침들의 연결 고리

36 과학과 영성

신의 존재 확률에 대한 검토

39 스승님의 농담

조금 있으면 증명된다/ 유유상종/ 깜박 넘어갔네!

40 골라 뽑은 수행문답

내면의 성찰은 상호간의 이해를 넓힌다/
스승의 힘과 융화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사랑으로 세계 평화를 증진하자/
수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라/
온 마음을 모아 내면으로 집중하면 외로움은 없어진다

44 영화 세계

순탄한 삶을 위해 이완하고 융통성을 가지라

45 사랑의 실천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파나마

47 감사 편지

아르헨티나 산타페

49 관음 웹사이트

50 전세계 연락처

55/ 뒤표지 안 무상예술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그림/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 작품

출판일자 : 2004. 9. 18.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52호

■ 스위스 소식

제네바 국제도서전에서 진리를 전하다

우술라 클라인/ 제네바

[제네바] 제네바 센터 동수들은 2004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매년 약 12만 명이 참관하는 제네바 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고대 출판본 성서를 전시한 부스와 영성 서적, 채식 판매 등을 하는 부스들과 함께 넓적하고 밝은 공간에 자리를 잡은 우리 부스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퍼져 나와 많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스승님의 안내로 프랑스와 불가리아 동수들이 도서전 개막 전에 도착해 도와준 덕분에 부스 준비와 운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공식 개막식에는 스위스 외무장관인 미셸린 칼미레이 여사가 참석해 매우 감동적인 개막 연설을 했다. 칼미레이 여사는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는 일은 물질적인 성공보다 훨씬 중요하며 제네바는 국제 평화 회담의 주역으로서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우리 부스를 찾아온 많은 학생들은 스승님의 견본책자에 열띤 관심을 보이며 가족과 함께 보기 위해 책을 가져갔다. 한 이슬람 소년은 스승님의 ‘신



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를 주의 깊게 보면서 누나에게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7년째 영적 스승을 찾고 있다는 한 여성은 몇 번이나 우리 부스를 찾아오며 떠나기를 아쉬워했다. 부스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친구를 데리고 다시 찾아오는 이들도 많았으며 부스에서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던 사람들은 함박 웃음을 머금고 부스를 떠났다. 이 밖에 1993년 세계 순회 강연 중 제네바를 방문하셨던 스승님을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다.

이 밖에 도서전 주최측에서 모든 부스 운영자들에게 시설이 잘 갖춰진 회의실을 세미나용으로 무료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자 우리 동수들은 두 번의 세미나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나중에 대형 화면으로 스승님의 DVD 강연이 방영되자 이를 감상하는 행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참석자들은 모두 관음법문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으며 그 중 일부는 방편법을 신청하기도 했다.

2004년 제네바 국제도서전은 참가한 모든 동수들에게 뜻깊고 멋진 경험을 선사했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 내내 함께 해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드렸다.



■ 코스타리카 소식

내면의 무상사의 힘으로 일하다

코스타리카 뉴스 그룹

[산호세] 2004년 5월 9일, 코스타리카 센터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에는 전국에서 환희심에 가득 찬 백여 명의 구도자들이 참석해 진리를 함께 나누었다.

강연회 당일, 아침부터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상청에선 오후 늦게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으나 기적처럼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비가 그치고 날이 개기 시작했다. 비디오가 상영되는 동안 청중들은 스승님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며 스승님의 말씀에서 마음의 양식을 얻고 진리를 향한 갈망을 채웠다.

또한 많은 참석자들이 관음법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했다.

이번 비디오 강연회는 인원이 적은 코스타리카 동수들이 센터에서 치른 최초의 대규모 행사였다. 이 기간 동안 동수들은 호법, 음향 및 컴퓨터 장비 준비, 스승님의 출판물 전시, 주방 일 등을 분담해 국제 행사를 준비하듯 서로 협력하여 일을 진행했다.

돌아보면 이번 행사는 사랑과 협동을 훈련할 수 있었던 과정이



였으며 행사 내내 개미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하듯 우리는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해 우리 코스타리카 동수들이 지고하신 신의 은총과 전능한 힘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페루 소식

영성의 국경을 확장하다

에드가 나달 파레야/ 피우라

[피우라] 2004년 5월 14일 페루에 관음사자가 오신 것을 환영하기 위해 페루 동수들은 에콰도르 국경에 인접한 페루 북부의 피우라 시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각 센터를 순회하며 사랑하는 스승님의 생신을 경축했다.

강연회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동수들은 라디오 및 TV 방송국과 일련의 인터뷰를 갖고 신문사인 엘티

엠포(El Tiempo)와 라호라(La Hora)의 대표들과 얘기를 나눴다. 그 중 진리를 찾고 있던 라호라 신문사의 한 기자는 동수들에게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스승님과 깊은 인연이

느껴진다고 얘기했다. 동수들과 수 행에 관한 주제를 나눈 후 그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스승님이 페루에 오시면 꼭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평생 아쉬웠던 한 가지가 참스승을 만나지 못한 점이었다면서 매우 감격스러워했다. 이에 동수들이 『즉각 깨닫는 열쇠』 한 권과 몇 가지 전단지를 선물하자 그는 매우 고맙게 받았다.

강연회 당일, 그 기자가 보낸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러 오자 동수들은 새로운 참고 자료를 주었다. 이에 앞서 인터뷰를 가진 TV 방송국 직원들에게도 자료를 주었는데, 그들 또한 관음법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했다. 그 중 출공영적 깨달음을 추구해 온 한 기자는 멀리 유럽까지 갔다 왔지만 오늘에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승을 알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그는 강연일에도 일찌감치 찾아와 스승님의 책을 구하고 방편법도 배웠다.

5월 14일 손님들이 하나같이 일찍 도착해 강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강연회가 정시에 시작되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청중들은 만면에 기쁨의 미소를 띠었다. 일부 청중들은 오늘날 사회적으로는 영적인 주제가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라서 위대한 가르침을 경험할 이번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참석자 중 1/3 가량이 방편법을 배웠다. 그 중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한 가정은 동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기회를 기다려 왔습니다. 10년 동안 채식도 하고 온갖 명상법도 수행하면서요. 이제 내가 원하는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살아 계신 스승을 만나게 되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밖에도 흥법 팀의 동수들은 치클라요, 트루히요, 침보테 등의 센터를 방문하며 보람을 느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각 센터의 동수들은

명상을 통해 많은 기쁨과 축복을 얻었기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싶어했다. 이 방문 기간 동안 동수들은 여러 센터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기회를 갖게 되어 앞으로 선 행사와 다른 활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 서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널리 알려진 어항인 침보테에서 방편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칠레에서 온 복음주의 목사가 있었다. 한 동수를 통해 스승님을 알게 된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담긴 지혜와 그 명확한 해석은 정말 중요한 것이며 성서와도 많이 일치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신도들이 스승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 배울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페루 북부 센터들을 하나씩 순회할 때마다 각 센터에선 큰사랑으로 환대해 주었고, 동수들은 떠나기 전에 항상 단체명상을 하며 유종의미를 거두었다. 사랑하는 스승님의 축복을 동포들과 나눌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드린다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 호주 소식

최고의 법문을 서로 나누다

레이 덕슨/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뉴사우스웨일즈] 2004년 5월 29일, 브리즈번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센터 동수들은 아름다운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사우스 트윈드 헤즈에서 관음법문 명상법에 대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상쾌한 가을 날씨와 행복감이 완연한 가운데 스승님의 가르침이 이 새로운 지역에 소개되었다. 비디오 상영과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자 대부분의 방문객이 남아서 방법법을 배웠다. 이번에 행사에 참여한 한 사형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청중들의 큰 변화를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위기이더니 스승님의 가르침을 좀 알고선 흥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연스레 무리를 지어 열띤 토론을 벌이더군요. 그런 변화는 곳곳으로 퍼져 나가 행

사장에선 관음법문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동수들은 참석자들이 이런 엄청난 변화와 기적, 마음의 평화를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선 참석자들과 똑같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해서 사우스 트윈드 헤즈 강연회는 동수와 청중 모두를 흡족하게 해주었다.

■ 미국 메사추세츠 소식

다문화 축제 속에서 신과 하나됨을 느끼다

보스턴 뉴스그룹

[보스턴] 황금시대 원년 5월 1일과 2일, 보스턴 센터 동수들은 2004년 우스터 다문화 축제에 참가할 축복을 받았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

원들이 한데 모여 놀이와 음식, 축하 행사를 함께하면서 서로의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번에는 스페인, 인도, 아프리카, 라오스, 어울

락, 폴란드 등의 다양한 문화와 영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해 전통 의상과 예술, 전시회, 음식, 음악과 공연을 통해 서로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킬트를 입고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스코틀랜드 남성들을 선두로 하여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기수단의 행렬로 축제가 시작되었다. 보스턴 센터의 동수들도 남녀노소 모두 행진에 참가했다. 어린이들은 얼굴과 팔에 여러 문양을 그려 넣으며 즐거워했으며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이날 벌어진 다양한 음악 공연과 무용 공연에 눈을 빼앗겼다.

동수들은 우리 부스를 찾아 열렬한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에게 스승님의 생애와 공헌, 관음법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이 케이블 TV로 방송된다는 정보와 더불어 무료 견본책자를 받았다. 놀랍게도 라오스 무용단의 한 무용수와 그 가족들은 이미 스승님과 가르침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무용수의 대부

인 동수를 통해 스승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축제가 끝난 후 보스턴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대표해 미국 독립기념일을 경축하는 꽃마차 퍼레이드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을 받기도 했다. 2004년 우스터 다문화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영적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재미있고 즐거운 행사였다.

■ 네 팔 소식

석탄일에 스승님의 지혜를 나누다

아자이 슈레스타/ 카트만두

[카트만두] 2004년 5월 4일 불기 2548년 석가탄신일, 카트만두 센터 동수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며 이 성스러운 날을 경축했다. 동수들은 이렇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눔으로써 스승님의 긍정적인 진동과 사랑의 힘이 널리 퍼져 나가고 나라에 안정과 평화가 더욱 빨리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일찍부터 동수들은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인 ‘스와얌부나스’^{*}에 모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명상과 참 스승을 알고자 매우 적



극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진이 실린 특별하고 멋

진 견본책자가 무료라는 점에 놀라워했다. 심지어 무료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책값을 지불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은 날씨도 좋고 사방에 상서로운 기운도 가득하여 동수들이 스승님과 명상에 대해 한결 편안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비가 그친 데다 모든 일들이 당초 계획보다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스승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네팔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리라 믿는다.

^{*} 스와얌부나스(Swayambhu Nath)- 카트만두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으로서 사원 주변에 수많은 야생 원숭이가 살고 있는 탓에 ‘원숭이 사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 태국 소식

국제식품전을 빛낸 스승님의 가르침

방콕 뉴스그룹

[방콕] 방콕 센터는 2004년 5월 29일과 30일, 태국 상공부와 무역 진흥청, 그리고 독일의 전시 업체인 쾰른메스(Koelnmesse)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2004 타이팩스 & 홀팩스 태국 국제식품전에 참가해 스승님의 강연 DVD를 상영하고 가르침을 소개했다.

동수들은 또한 전시회 기간 동안 7월 11일 일요일 방콕 교외인 논타부리에 위치한 수코타이 타마티라트 통신대학교에서 열릴 비디오 강연회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이날 부스를 찾은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웃는 얼굴로 스승님의 사진에 귀엽게 입맞춤을 하던 모습은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한 십대 소녀는 스승님의 강연 DVD를 한참

동안 시청하고선 전단지와 스승님에 대한 팸플릿을 챙겨 갔다가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 『즉각 깨닫는 열쇠』를 읽고 스승님의 강연을 계속 시청하기도 했다.

우리의 관심을 끈 또 다른 한 중년 남성은 선 채로 스승님의 강연인 ‘내면의 본성에 귀 기울이기’를 관심 있게 경청한 뒤 “이 DVD는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센터를 찾아가서 칭하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동수들에게 얘기했다.

한 여성은 관음법문에 대한 전단지와 견본책자를 읽은 후 “이분을 전에 어디선가 뵈긴 했었는데, 이

분인지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스승님의 진동 속에 깊이 잠긴 듯 우리 부스에서 상영되는 스승님의 모습을 보며 감동에 젖었다.

태국 동수들은 2004 태국 타이팩스 & 홀팩스 국제식품전 참가를 통해 얻은 축복으로 가슴이 충만해졌다. 멋진 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우주로 펼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홍콩 소식

아름다운 삶을 위한 채식

홍콩 뉴스그룹

[홍콩] 홍콩 센터 동수들은 주민들에게 채식에 대한 개념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2004년 5월 ‘채식으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티엔슈이와이 신시가지에서 채식 홍보 행사를 치렀다. 행사에

서 진행된 음악회와 도서전, 채식 음식 시식회는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주민들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채식이 건강에 이롭다는 개념을 잘 받아들였다.

이번 행사에는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해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고 다양한 채식 음식을 즐기는 한편 채식 요리법과 그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심도 있는 많은 질문을 하였다.

멋지게 진열된 채식 요리책과 다른 출판물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스승님의 견본책자에 실린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는 과학적인 설명과 함께 건강 및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채식주의 생활 양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 청년은 주변에서 펼쳐지는 멋진 공연 프로그램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견본책자를 읽는 데 몰



입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많은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행사장에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채식에 대한 정보를 실은 게시판이 선보이기도 했다. 이외 동수들은 채식 조리법과 다른 정보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행사 중 동수들이 주관한 두 차례의 공연은 즐거운 분위기를 한층 더해 주었다. 어린이 동수들의 무용 및 바이올린 연주에 이어 어

른 동수들은 현대적인 멜로디에 채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불렀으며 영성의 고양을 주제로 한 시도 낭송되었다.

방문객들 중에는 이미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되었는데, 이

들은 행사의 주제에 끌려 참석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또한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채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채식으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자’ 행사는 티앤슈이와이 지역에 빛과 생기를 불러 넣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의 성공에 힘입어 홍콩 동수들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식의 일상 생활화를 위한 홍보 행사를 보다 많이 개최하기로 했다.

■ 포모사 소식

맑고 푸른 산 가꾸기 활동

타이베이 뉴스그룹

[타이베이] 2004년 5월에는 몇 차례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려 포모사의 메말랐던 산천을 촉촉히 적혀 주었다.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태풍 철이 되기 전 5월 말 주말을 이용해 양밍산 도장을 찾아가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맑고 푸른 산 가



꾸기’ 활동을 펼치고 마을과의 유대 관계도 돈독히 다졌다.

동수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도장 내 대나무숲에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다른 한 팀은 이웃한 파미르 공원을 정돈하고 그곳 식물들을 가지치기했다. 작열하는 땀별

아래 땀이 비 오듯 했지만 동수들은 일 속에서 즐거움을 누렸으며, 서로 협력한 덕분에 오전 중에 거의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다.

행사에 참가한 동수들 중에는 외국에 있다가 이번에 지구를 반 바퀴 돌아와 포모사의 단체명상에 참가해 재충전하고 있던 동수들이 두 사람 있었다. 그 중 캐나다 벤쿠버에서 온 후 사형은 열네 살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2000년에 라디오를 통해 스승님의 중국어 강연을 듣고선 방

편법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3개월 간 채식의 한 뒤 한국 영동 센터에서 입문을 받았다. 그러다 올해 5월 중순 경 일부러 포모사를 방문해 수천 명의 동수들과 함께 명상하는 멋진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생전 처음 파미르 공원에서 일한 후 사형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동수들간의 정을 깊이 체험했다.

또 미국 워싱턴의 시애틀에서 온 리우 사저는 미국에선 단체명상에 참가하려면 몇 시간이나 차

를 몰고 가야 한다면서 포모사 동수들은 수시로 편하게 단체명상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정말 복이 많으며 부러워했다. 파미르 공원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녀는 공원 청소를 도우며 매우 뿌듯해했다. 리우 사저는 포모사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을 뿐 아니라 수행과 더불어 스승님 일과 센터 일을 신실하게 돕는 이곳 동수들의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바자회에 생기를 불어 넣은 스승님의 사랑

진면 뉴스그룹

[진면] 2004년 5월 8일 진면 동수들은 진면 현의 '장기(長期) 관리 엑스포'의 자선 바자회에 참여했다. 이날 인파가 끊임없이 이어진 가운데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 예술작품은 사람들의 초점이 되었으며, 동수들이 바자회에 내 놓은 무시루떡과 우유 케이크, 과일 젤리도 금세 동이 나 버렸다.

스승님의 놀라운 안내 덕분에 손님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한 우리 부스는 스승님의 출판물을 생동감 있게 배



치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부스에서 설세없이 흘러나오는 스승님의 창작 음악으로 인해 일하는 동수들은 스승님이 곁에 계시는 듯 피곤한 줄도 모른 채 손님들을 맞이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당초 내리던 비가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그친 덕분에 비 온 뒤의 청량한 날씨가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비는 행사가 다 끝난 후에야 다시 내렸으니, 스승님의 안내는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번 자선 바자회의 수익금 일체를 기본책자와 뉴스잡지 등과 함께 진먼 정신재활협회에 기증했다. 우아친 이사장은 협회원을 대신해 선물을 받으며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진먼에는 동수가 많지 않지만 스승님의 축복 속에 서로들 협심하여 평소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동수들은 이 기회를 성장과 학습의 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먼 주민들과 함께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과 활력을 나누었다.



‘장기 관리 엑스포’의 자선 바자회에 참가한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활동을 보도한 진먼일보

건강한 심신과 영혼으로 황금시대를 열어 나가다

핑둥 뉴스그룹

[차오조우] 5월은 감사의 계절이다. 핑둥 동수들은 무수히 많은 영혼을 해탈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고자 5월 16일 라이이센터 부근에서 스승님의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 중 비디오 강연회도 개최해 지역민들에게 심신과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소개함으로써 지상에서 진선미의 낙원을 함께 창조할 수 있길 기대했다.

화창한 5월 16일, 동수들은 한 마음으로 행사장을 꾸미고 우아한 천의와 독특하고 눈부신 만세등, 깊은 의미를 가진 스승님의 그림, 세간을 초월한 창작 음악집 등 다방면에 걸친 스승님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했다. 이 매혹적인 영성의 향연에



서는 방문객들이 더위를 식히도록 시원한 음료수와 간식도 함께 제공되었다. 이 밖에 동수들로 구성된 사랑의 의료 팀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진행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먼저 화려한 용춤이 공연의 서막을 알렸다. 동수들의 멋진 공연이 줄줄이 이어지자 청중들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내용에 큰 박수 갈채를 보냈다. 이어서 영혼을 일깨우는 ‘평화의 음악, 하나된 세상’ 자선 음악회 비디오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가 상영되자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에 빠져들었다.

다음으로 한 장주가 관음법문을 소개하자 많은 이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방편법을 전수 받은 새로운 수행자들은 매우 좋은 내면의 비전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남자는 내면 깊은 곳의 느낌을 이루 다 표현하지 못하고 “아주 괜찮은데! 아주 괜찮아!” 하고 연신 외쳤다. 평소 명상을 해

왔던 한 노신사는 스승님의 메시지에 큰 관심을 갖고서 중문 및 영문 경서를 구한 후 한 사형과 수행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접한 그의 얼굴은 법열로 환하게 빛났다. 그는 입문할 수 있는 연령이 넘어 방법만 할 수 있었지만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안에서 열린 홍법 강연회는



영혼을 해탈시키는 ‘양약(良藥)’을 제공해 신실한 참석자들에게 자유와 법희를 체험케 했으며 밖에서 진

행된 무료 건강 검진은 주민들의 심신을 돌보았다.

이번 행사는 스승님의 축복으로 성공리에 마쳤으며 평등 동수들은 지역 주민들의 심신과 영혼의 성장을 도울 기회를 또 한 차례 갖게 된 것에 기뻐했다. 황금시대에는 모두들 영성이 고양돼 사랑과 깨달음이 가득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믿어진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중국어 자막>

620 스승의 진정한 힘

1998. 5. 9. 한국 영동 센터 국제선오

내용 요약: 스승님은 스승의 전능한 힘, 아울러 그 힘과 스승의 육신 간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신다. 이 외에 스승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셨다.

- 왜 하루 2시간 30분 명상한 힘이 천 년을 가는가?
-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비롯해 집착이 수행에 방해되는 까닭은?
- 진정한 성인이란 무엇인가?
- 청년 학생들은 수행과 학업 사이에서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가?
- 고도로 발달된 우주 사회에서는 어떠한 작업 시스템을 운용하는가?
- 그 시스템과 물질화된 사회의 차이점은?
- 관음 수행자들은 어째서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가?

영적 에너지는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5.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4

깨달음만이 무지를 없앨 수 있으며, 신의 사랑만이 미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형제애만이 우리 형제자매간의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을 녹일 수 있습니다. 신의 사랑을 이 행성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나와 함께 소리 없이 기도하면서 신을 깨닫고 신의 사랑과 천국을 이 행성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천국으로부터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지구가 평화로워지길 기원할 뿐입니다. 나는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쓰지만 살상 무기를 위해선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단점과 에고, 나쁜 성향을 극복하는 것은 그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값진 최고의 승리입니다. 강력한 영적 에너지는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의 사랑으로 싸우고, 영적인 힘으로 싸우고 여러분의 집에서 싸우며, 우리와 같이 싸워야합니다. 예, 입문을 하고 명상을 하고 신과 연결되어 이 행성의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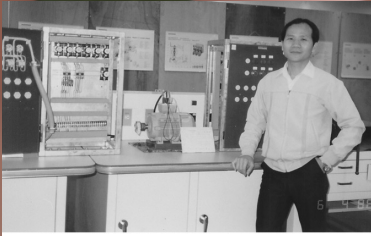
청하이 무상사/ 1994. 1. 2. 태국 불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01

많이 가졌다면 적게 가진 이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주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언가를 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뿌듯해지지요.

엘리트 시민을 배출하는 관음법문

‘전국 10대 기술인 모범 상’ 수상자
리종량 사형과의 단독 인터뷰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산 직원 훈련원 실험실에서 수업하는 리종량 사형.

직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입문하게 되다

리 사형은 1990년에 스승님께 입문했다. 어떤 연유로 관음법문을 수행하게 되었을까? 그는 기억을 더듬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주었다. 1990년 타이산 직원훈련원에 새로 신설된 부서에 한 신입 과장이 들어왔다. 젊고 패기 넘치는 그는 종종 다른 이들과 다투곤 했는데 얼마 후부턴 전혀 판판으로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부드러워졌다. 한동안 지켜보던 리 사형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그렇게 갑작스레 변하게 된 동기에 대해 묻자 신입 과장(황 사형)은 관음법문 때문이라고 얘기해주었다. 이 대화를 통해 리 사형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수행에 대한 인식을 한층 넓히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스승님께서 타이베이 국부 기념관에서 강연하신다는 희소식을 들은 사형은 직장에서 돌아와 부인과 함께 강연에 참석했다. 스승님이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두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이는 그의 영혼의 갈망 어린 눈물이자 살아 계신 큰스승을 만났다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 강연 후 리 사형 부부는 스승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당시 그에게는 만 12세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장남과 그보다 어린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채식의 하고 오계를 지키며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고 싶어해서 결국 1990년 3월 4일 온 가족이 스승님께 입문하게 되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해외 빈민들을 돕다

입문 후 리 사형은 청소년 선도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는 매월 2,

타이산 직원 훈련원 교무과장을 맡고 있는 리종량 사형은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여가 시간을 교육 연구와 개발에 바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리 사형은 특히 6년 간 남아프리카, 말라위 등의 국가를 방문해 현지 직원훈련원을 건립하고 전문기술을 널리 인정받음에 따라 2002년 ‘전국 10대 기술인 모범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청하이 무상사는 일찌감치 다음과 같이 대중을 격려한 바 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자신을 훈련시키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이 세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함에 있어 사랑과 겸손한 마음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수년 간 리 사형은 스승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상 생활과 일터에서 실천해 왔다. 이번 인터뷰에서 사형은 직업과 영적 수행을 통해 얻은 체험과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었다.



3주마다 청소년 보호 관찰소를 방문해 청소년 친구들을 돌보는 한편 평소에도 직장인 직업훈련원에 있는 불량 학생들을 상담 지도했다. 또한 수년 동안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 밖에 그는 직업훈련원의 교무과장으로서는 포모사 직업훈련국에서 추진한 ‘해외 직업 훈련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전기 기술 전문가로 남아프리카와 말라위 등의 국가에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직업훈련원 건립, 훈련원 설계, 교육 자료 제작, 장비 구입 및 설치, 훈련 교사 양성에 힘썼다. 리 사형은 이 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각국의 빈민층이 자립 갱생하여 존엄성과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도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유럽의 1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이들을 목격했다. 내면에서 샘솟는 사랑은 리 사형을 끊임없이 격려해 나라를 옮겨 다니며 현지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돕도록 했다. 외지고 황폐한 곳을 방문해야 하는 험난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도록 도와주신 스승님의 은총에 매우 감사드렸다.

수행을 통해 지혜와 재능을 개발하다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리 사형은 직장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스승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애썼으며 동료와 훈련생들에게 관심을 베풀었다. 여러 우수한 실적으로 그는 1998년 ‘국제 고용 안전 협회(IAPES)’로부터 ‘기술 모범 상’을 받았고 2002년 12월 12일에는 포모사 행정원 노동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제8회 ‘전국 10대 기술인 모범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각 전문 분야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업무 공헌도, 동료와의 협력 관계, 서비스 열의, 창의적인 생산 기술 개발, 업무 효율성 향상, 우수한 전문 기술 및 경험, 후진 양성 능력 및 기술 전수 등의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다. 리 사형은 직장 상사의 추천을 받아 1천 명의 후보 가운데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리 사형의 이번 수상은 수년에 걸친 그의 직업상의 노고와 헌신을 널리 인정받은 것일 뿐 아니라 관음법문 수행이 우리의 사랑과 잠재 능력을 개발해 만인을 더욱 이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 밖에 전국 발명 특허를 두 개나 갖고 있는 리 사형은 모든 영광을 관음법문과 스승님의 은총에 돌린다. 그는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면 명상을 통해 정신을 가다듬고 영감을 찾음으로써 장애를



전 노동위원회 의장인 홍청린 씨가 타이산 직업 훈련원을 시찰하면서 리종량 교무과장(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돌파하고, 이 영감을 구체화하여 많은 귀중한 산업 장비들을 성공적으로 발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리 사형의 성취는 스승님의 다음 말씀을 입증한다. “우리의 본래 지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 능력과 사랑, 순수한 본성이 모두 드러날 것이고 내면의 재능 또한 갑자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신의 왕국을 찾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결론

중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맹자는 “무지하면 자기 몸만 돌보지만 깨달으면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했다.

리 사형은 스승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줄곧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이상을 품고 실천하고 있다. 그는 물질 세계에서 대중을 위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한편 인연있는 사람들이 관음가족의 대오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음법문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리 사형은 자신은 그저 스승님의 본보기를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겸손

하게 말하면서 동수들도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성의 힘을 퍼뜨려 함께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했다!

클릭할 때마다 기아민에게 음식을 보내는 사이트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세계의 기아 인구수가 현저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개발 국가, 미개발 국가 할 것 없이 많은 가정들이 먹을 것을 사지 못하거나 자급자족할 수 없는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기아 사이트(The Hunger Site)’는 인터넷을 통해 기부를 하려는 대형 식품업체와 광고주, 개인을 서로 연계해 준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트 방문자에게 기부하라고 하는 대신 몇 분만 할애하라고 한다는 점이다. 기아 사이트의 ‘무료 음식 나누기(Give Free Food)’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1.1컵의 기본 식량이 기아민들에게 보내진다. 음식에 대한 경비는 선발된 후원자들이 지불하며 구호단체인 ‘머시코(Mercy Corps)’와 무료 급식 단체인 ‘세컨드 하비스트(Second Harvest)’ 등의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낸다.

기아 사이트의 방문자는 하루에 한 번만 ‘무료 음식 나누기’를 클릭

할 수 있지만, 1일 방문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 이메일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명상뿐 아니라 무아의 봉사를 통해서도 수행이 진보한다고 하셨다. “더 많이 명상하고 할 수 있으면 언제든 인류를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도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이며 여러분의 수행 진보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이다. 기아 사이트 방문은 스승님의 충고를 따르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아 사이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thehungersite.com>

수행의 길을 두루 안내해 주시는 스승님

구술: 중국 본토 동수, 기록: 중국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입문하기 전, 나는 예순이 넘는 나이에도 혼자서 45,000평을 농사지어야 했다. 그러나 3년 간 연이어 흉작이 드는 바람에 생활은 극도로 궁핍해졌고 힘든 나날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앞이 캄캄해 절망과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얀 옷을 입은 선녀 둘이서 나를 마차에 태워 여동생이 살고 있는 광산 지역으로 데려가는 꿈을 꾸었다. 내가 선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를 구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그들은 도와주겠다고 대답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너무 신기해서 바로 여동생의 집으로 출발했다. 당시 이미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던 여동생은 나를 보자마자 수행을 해야 한다며, 수행을 해야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고통의 바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 순간, 전에 꾸었던 꿈이 떠올라 나는 여동생 집에 머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스승님의 축복으로 임시직을 구해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관음법문에 입문하기만을 고대했다.

2002년 4월, 마침내 입문을 했다. 그 후 기적이 또 일어났다. 한번은 명상 중에 스승님이 나타나 집을

사라고 하셨다. 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 집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데다 몇 년 동안 여동생 집에 머물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집 살 돈을 모아 두었다. 그때 마침 별거승이 산 비탈에 사는 한 사람이 300원(미화 약 36달러)이라는 헐값에 집을 내놓았다. 친구의 돈을 보태 그 작은 집을 내 앞으로 이전한 지 열흘도 채 안 돼서 나는 그 지방이 관광개발지로 책정되었으니 모든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부로부터 11,000원(미화 약 1,325달러)을 보상금으로 받은 나는 생활비가 생기자 임시직을 그만두고 수행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놀라운 안내라는 건 말할 나위 없다.

입문한 후 지금까지 나는 매일 8시간씩 명상하고 있고 현재 10여 명의 동수들과 함께 단체명상도 하고 있으며, 내적·외적으로 많은 체험을 하고 있고 몸도 더욱 건강해졌다. 나는 비록 학식도 없고 글도 쓸 줄 모르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글로도 스승님에 대한 나의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저 스승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뿐이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이 해주신 수술

하운베이 에릭 사형/ 베닌 (원문 영어)

5년 전 맹장 수술을 받았을 당시 의사들은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두 달 정도 쉬 다음 좋아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당시에는 칭하이 스승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스승님은

나를 아시고 보살펴 주셨다. 나중에 스승님에 대해 알고 2002년 12월에 입문을 하고 나선 언제나 최선을 다해 명상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스승님의 은총으로 내적·외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자주 했다.

수술을 한 뒤 별다른 염증이 없어서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2004년 1월 들어 한 차례씩 극심한 고통과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더니 나날이 심해져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수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나는 그때 염증이 있는 부분에 초음파 치료를 받기만 하고 수술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병원을 다녀온 후 그 다음 일요일인 2004년 1월 28일, 나는 베닌 센터의 새벽 명상에 참석했다. 세 시간 가량 명상하고 나자 통증이 너무 심해져 도저히 관음을 할 수 없었던 나는 화장실로 가서 좀 진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배가 몹시 가려워 셔츠를 올려 보니 몸에 작은 상처가 벌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내가 상처 주위를 여기저기 힘껏 눌러보자 꿈틀거리던 흰 구더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이런 상

황은 6분 정도 계속됐는데, 그 동안 나의 온몸에선 땀이 실새없이 흘러내렸다. 이후 내가 다시 들어가 명상을 시작하자 고통과 땀도 멈추었고 갑자기 고통과 초조함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 자신의 외침을 들었다. “와! 스승님이 수술해 주셨다. 난 이제 다 나았어!” 이 체험이 있은 후 나는 더 이상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센터에서 명상 시간이 끝난 후 내가 몇몇 사형들에게 이 체험을 얘기하자 모두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 중 한 사형은 그 ‘구더기’가 내 몸 속에 쌓여 있던 노폐물들이 밖으로 배출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나의 내적·외적 요구를 들어주시는 살아 계신 참 스승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세계를 보살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스승님의 자비와 인류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개달은 스승을 한 번이라도 보면 해탈한다

단 바 옥 사형 /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나의 어머니인 트라크 응우엔 여사는 95세였던 1997년 7월 로스앤젤레스 센터에서 스승님을 친견했다. 어머니가 채식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스승님께 말씀드리자 스승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라고 하셨다.

친구 분과 함께 사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갑자기 생선과 고기 냄새가 역겨워졌고 고기를 먹으면 구역질을 하셨다. 나중에 어머니는 내게 여생 동안 채식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룸메이트의 고기 요리를 참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즉시 우리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왔고 그 김에 온 가족이 채식을 하게 되었다. 그 뒤 어머니는 방법도 배우셨다.

스승님은 전에 우리가 채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신이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비록 스승님이 어머니에게 농담처럼 아들인 내게 도움을 청해 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순간 스승님은 사랑의 힘으로 어머니가 평생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조용히 축복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음가족 일가를 이루며 함께 살게 되었고 우리 집에는 늘 스승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불찬이 끊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방편법을 수행하던 어머니는 다른 일반 동수들만큼이나 내면의 빛과 소리에 대한 체험이 많았다. 하루는 내게 “어젯밤에 내 방에 왔었니?” 하고 물으시기에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말

씀하셨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와 불을 켜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어머니는 또 때로 머릿속에서 스승님의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체험을 하곤 했다.

어머니는 매일 스승님의 명호를 공손히 외우셨는데, 가족들은 때로 어머니가 화신 스승님을 앞에 두고 노래하거나 얘기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선 어떻게 아셨는지 이해하시고 가족들을 상기시켜 주시기도 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먼저 스승님의 명호를 외워야 한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돌아가시기 2개월 전쯤에 넘어진 어머니에게 동수들이 문병을 왔다.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하고 동수들이 위로하자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아니야, 기적해야 두 달이나 남았을까.” 하고 대꾸하셨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1주일 전부터는 우유만 조금 드시고 침대 옆에 스승님의 불찬 테이

프를 항상 틀어 놓으며 하루 종일 침대에만 계셨다. 그리고 2004년 5월 16일 향년 102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손발과 하반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상반신, 특히 목 위로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불경에선 이것이 정토의 높은 경지에 왕생했음을 알려주는 징표라고 했다. 또 돌아가신 후에도 안색이 건강해 보여서 마치 편안히 잠든 사람처럼 보였다. 손자들이 수의를 입혔는데, 손이 완전히 굳어서 옷이 안 들어갔다. 마침내 조카딸 하나가 “할머니! 옷 입히게 손 좀 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어머니의 손이 살아있을 때처럼 부드러워지더니 스르륵 펴졌다!

나는 스승님께서 어머니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광경을 다시 한 번 목격하면서 어머니가 지상에서 평화로운 만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신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두 살배기 꼬마의 뽀뽀

페르난도 시소 사형/ 배넌 (원문 영어)

2001년 10월에 입문한 이후 나는 수시로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곤 했다. 하루는 두 살이 다 되어 가는 조카가 우리 아이들의 방에서 스승님의 사진을 한 장 발견하고는 거기에 마음이 끌린 듯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다른 아이들은 방에 왔을 때 꼬마가 스승님의 사진에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 자기 눈이 믿어지지 않았다.

짓궂은 아이들은 장난삼아 다른 가족들의 사진을 침대 위에 하나 가득 깔아 놓고는 그 사이에 스승님의 사진을 숨겼다. 그러자 조카는 사진을 하나하나 가려내더니 결국엔 스승님의 사진을 찾아내 다시 뽀뽀를 했다. 다시 한 번 깜짝 놀란 아이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중에 직장에서 돌아와 이 얘기를 듣고선 나 역시 놀랍기만 했다. 스승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린 조카가 어찌면 그렇게도 강하게 스승님의 모습에 끌렸는지 이해가 안 났기 때문이다.

내가 멀리 일하러 가 있는 사이에 이런 체험으로 우리 가족을 감동시킨 스승님께 진실로 감사드린다.

또한 관음법문을 통한 축복과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강하게 다져 주시고 이전에 종종 느끼곤 했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나는 이제 스승님이 제자들을 속속들이 아시며, 내가 우수한 전기 기사가 되게끔 도와주시고 온전한 관음수행자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은근한 일깨움으로 담배를 끊게 하시다

구술: 포모사 타오위안 라오원시엔 사형/
기록: 포모사 타오위안 뉴스그룹

올해 초 둘째 누나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한 권 줬는데, 보자마자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전에도 다른 가족에게서 다른 스승들의 견본책자를 받아 읽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읽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채식의 하고 방법법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피우던 습관을 끊는 건 채식에 비해 만만치 않았다. 나는 전에도 담배를 끊으려고 수차례나 시도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이 피게 되곤 했었다. 방법법을 수행하면서 나는 다시 담배를 끊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내면의 반발은 더욱 완강해져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스승님의 법상이 왜 자꾸 떨어지지?’ ‘내가 방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런가?’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주의를 주었다. ‘다시 시도해 보자! 그리고 다음에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 방에서는 피지 말자.’ 그러자 정말 그때부터는 법상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졌다.

분명히 스승님은 내가 방법법을 수행하기 시작한 후로 나를 돌보고 계셨지만 나는 마음이 너무 조악하고 부주의해서 스승님의 은근한 일깨움과 가없는 기대와 관심을 무시했던 것이다. 이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은 나는 오랜 흡연 습관을 별 어려움 없이 끊게 되었다. 이 일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스승님의 성스러운 사랑은 내 가슴에 가득 울려 퍼지며 수행의 길을 가는 내게 자양분을 주고 있다.

시



참사랑

천우 동수/ 중국 본토
(원문 중국어)

당신을 알게 된 후로
삶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풀잎 하나 나무 하나
산 하나 물 하나마다
당신의 사랑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사랑의 실룩엿.

당신의 사랑의 방주(方舟)를 타고
당신의 유쾌한 노래, 말솜과 함께
시공의 경계를 지나
생사의 환상을 초월합니다.

나,
당신 생각의 현(絃)이 되어
사랑의 멜로디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나,
당신과 함께 항해하며
사랑의 악보에 몸을 싣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꿈을 꾼다. 여기서 잘 때 꿈을 안 꾸는 사람 있나요? (누군가 손을 들다.)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럼 잠을 안 잤다는 얘기지요! (스승님 웃음) 아니면 아라한이 됐던가요. 아라한은 꿈을 안 꾼다고 하더군요.

꿈과 수행

청하이 무상사/ 1987. 8. 30. 포모사 신디엔 (원문 중국어)

꿈에서 병이 낳다

때로 수행을 하다 어느 경지에 이르면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수행하십시오. 장애가 있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수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수행을 할수록 몸도 건강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초기엔 건강할 수도 있겠지요. 이를테면 나를 보자마자 병이 바로 나으면 여러분은 더 빨리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웃음) 탐심이 생기는 거죠! 날 보자마자 5분도 안 돼 병이 나왔으니 수행을 좀 하면 육체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이나 재산, 안전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행을 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마치 쉬에런궈이(薛仁貴-중국의 용맹스런 장군)나 헤라클레스처럼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힘이 엄청나게 세서 팔을 가볍게

한 번 휘두르면 열 명이 나가떨어질 것이라고요. (대중 웃음) 나를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경지를 넘다 보면 상황이 더욱 달라집니다!

수행하다가 어떤 경지에 이르면 육체가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얘기했듯이 ‘힘’은 너무 센 데 비해 육신은 너무 약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진동력이 너무 빨라지면 때로는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사실 아픈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근기가 부족하면 이런 수준이 이르렀을 때 쉽게 퇴심(退心)할 것입니다. ‘이상하네! 왜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는데 점점 더 아픈 데가 많아지지?’ 하고 생각하니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동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범부의 몸에는 이미 많은 독약과 독기가 들어 있

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면 독기가 몸에 남게 됩니다.

좀 전까지 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가 왜 병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꿈에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수가 입문을 한 후 그만

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이 났을 때 화신 스승이 가서 치료를 해줬지요. 그는 나중에 병이 낫자 감동한 나머지 다시 나를 보러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그를 다시는 못 봤을 겁니다. 입문은 했지만 신심이 없어 도망을 가고 말았거든요!

꿈을 꾸는 의미와 중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 잘 때 꿈을 꾸지 않는다면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꿈이란 무엇일까요? 낮에 많은 의견을 피력할 길이 없었을 때 우리는 꿈에서 그것을 좀 풀거나 방출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득 차 있으면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혹은 낮에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화가 났어도 말하지 못했거나 말할 형편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얘기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상사에게 화가 나거나 우리보다 경지가 높은 스승에게 화가 나도(스승님 웃음)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꿈에서 그 화를 분출합니다.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평소 독소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꿈을 많이 꿀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몸 안의 독기가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또 잠을 잘 못 자면 병도 더 심해지지요. 체내에 독기와 나쁜 생각들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요. 설령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도 몸 안에 너무 많이 쌓이면 지나치게 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낮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쉬면서 독기가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실현되는 겁니다. 꿈속에서 상상을 하고 좀 즐기면 마음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꿈에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니다. 꿈속에서는 적어도 한 시간, 혹은 반 시간 정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편이 그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지요.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꿈이다

때로는 꿈의 상태가 하루 종일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악몽을 꿔다면 깨어나서도 계속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대중 대답: 예.) 악몽을 너무 많이 꾸면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도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실생활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 아주 나쁜 꿈을 꾸면 깨어나서

성질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당사자의 몸과 마음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혜 안에 집중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오불을 외우면서 명상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



는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설령 우리 생각이 나쁘지 않아도 사회와 가족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를 나쁘고 멍청하고 초조하고 덜 자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묵자(墨子)는 사회를 무시무시한 ‘거대한 염색 통’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불보살조차 이곳에 내려왔다 하면 오염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본래는 호명보살로 도솔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내려오자마자 걸을 수 있었고 무엇을 배우든 바로 깨쳤으며 선생들보다 출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지했습니다. 거의 서른이 다 된 나이에 밖에 나가 중생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나서야 깨어나 수행하게 되었죠. 그는 원래 보살로서 세세생생 수행을 해 왔고 끝없이 쓰고도 남을 공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내려온 후엔 세상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노자, 공자, 장자도 모두 다 오염이 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어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크게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꿈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지요.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이 작은 꿈이라면 이 세상은 커다란 꿈이라서 깨어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누군가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면 다른 사람이 “이봐, 깨어나! 괜찮아!” 하고 안심시켜 줘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커다란 ‘꿈’에서 우리를 깨워줄 깨달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깨우는 것을 싫어하고 계속 꿈을 꾸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세가 너무 심하여 한편으론 아프고 한편으론 꿈을 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그들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계속 잠자도록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마취된 것처럼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스스로 납니다. 그러므로 수행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수행하고 원치 않는 사람에겐 우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우리 관음 수행자들은 꿈에서 높은 차원에 올라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바쁘고 두뇌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기 어려울 때도 있어서 꿈속에서 가르칩니다. 꿈에서 5세기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속에서 삼계 이내만 갈 수 있을 뿐이며, 꿈에서 5세기에 갈 수 있는 이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꿈은 꿈이 아닙니다. 깨어나면 전부 다 기억나고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인도의 어떤 사람은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에 5세계 교주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5세계의 교주는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해 알려 주었지요.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 스승을 찾아 관음법문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균형이 깨지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생스레 수행하며 잠을 자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너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이 팽팽해진 것 같으면 천천히 하십시오. 아직 괜찮다고 느껴지면 잠을 안 자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날마다 잠잘 때를 기다려 스승이 우리를 가르치러 오길 바래서는 안 됩니다. 낮에도 자신을 가르치고 이 세상이 한바탕 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뇌를 잘 활용해 상상력을 넓히고 창조성을 계발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좀 더 훌륭하고 풍부하게 발휘하고 5세기에 도달하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지옥도 우리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 낸 꿈일 뿐 별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분위기와 행동은 벽돌과 시멘트처럼 서로 뭉쳐 벽을 만들기도 하는데, 좋지 못한 생각과 좋지 못한 행동으로 지은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도 없지만 지옥 중생의 눈에는 보이고 형상이 있습니다. 지옥은 매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나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감옥 또한 일종의 지옥입니다. 이 세계에도 지옥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무형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괴로울 때는 이 세상이 전혀 아름답지 않게 느껴집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 남편이나 부인도 갑자기 못

생겨 보입니다. 괴롭거나 슬플 때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궁궐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해도 감옥에 사는 것이나 같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위기는 외부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두뇌를 훈련시켜 좋은 면

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의 오오라는 점차 정화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정화되면 이 행성이 정화됩니다.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온 세상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수행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나라

우리는 수행을 통해 어느 날 문득 깨어나 이 환상의 세계가 커다란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결코 깨어나지 못한 채 이 꿈 저 꿈으로 옮겨 다니며 언제까지나 꿈속에 머물 것입니다. 마치 밤에 이 꿈을 꿔다가 또 다른 꿈을 꾸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다니는 것처럼 말이지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협박을 당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폭행하더니, 나중에는 돈을 뺏기는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엔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보내지는 꿈을 꿉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꿈에서 저 꿈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이 세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아수라 세계와 같은 다른 세계로 가서 계속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1백 년, 2백 년, 3백 년, 5백 년, 수백 년, 천 년 간 꿈을 꾸고 나면 지옥에 가서 2, 3백 년, 혹은 5천 년 동안 꿈을 꾸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 지렁이의 꿈, 소의 꿈, 새의 꿈을 꾸며 절대로 거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 동안에는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알고 있어도 깨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 있을 때는 자신이 새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동력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동일하며 영원히 좋고 깨끗하다 해도 우리는 주위 상황에 뒤떨어 꿈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움직일 손발이 있지만 뽕뽕 뭉여 있으면 발로 걸을 수도 없고 손으로 일할 수도 없

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우리를 상자에 넣어 강에 던져 버리면, 우리가 수영하는 법을 안다 해도 수영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자신을 구할 길이 없지요. 그나마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두들겨 맞아 정신을 잃거나 하면 자신을 구할 수 없지요. 나중에 깨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바다나 강바닥에 가라앉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2분만 있으면 죽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영혼은 계속 갇힌 상태로 이 상자에서 저 상자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 다닐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던져지건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윤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죽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묶였을 때 어떻게 자신을 구해야 할지 미리 알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밤에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대낮에도 꿈을 꾸지요. ‘백일몽’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매우 중요하고 신심이 강하고 수행을 잘하며 매우 도덕적이라고 꿈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행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을 속이고 스승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정말 수행하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참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고 스승을 믿고 존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꼭 데리고 올라갈



니다. 그들을 대신해 지옥에 가야 한다 해도 그들에겐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요!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내 모든 공덕을 줘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은 스승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스승을 감동시키면 그 스승은 여러분에게 삼계, 혹은 전 세계를 줄 수 있으며, 여러분을 왕이나 대수행자, 깨달은 스승이나 성인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사랑을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이든 다 얻게 됩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옥에 갈 범죄자거나 살인자라 해도 스승은 여러분을 아라한의 경지로 제도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살인자를 제도한 얘기를 기억합니까? 그는 아홉 아홉 명을 죽이고 부처마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를 제도해 아라한으로 만들었습니다. 큰스승에겐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에게 제도되길 바라기만 하면 스승은 여러분을 어떤 경지로든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높고 훌륭한 꿈을 꾸라

우리는 사소하고 사사로운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되니까요. 이걸 아주 중요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매우 풍부하고 강력하며, 수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상상이 실현됩니다. 그러니 주의 하십시오. 좋은 기대를 품어야만 우리 자신과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좋아질수록 만족스런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 나요? (대중 대답: 예.) 뭔가가 필요하면 마치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 바로 나타납니다.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힘이 점점 강해져서 천국에서 뭔가를 끌어 내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행이 높아질수록 보다 쉽게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우리의 생각을 더 훈련 시켜 뭔가를 요구할 때는 좋은 것들을 요구해야 하며 해탈하고 5세계에 오르고 지혜롭고 힘이 있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람직하지요. 그 외의 것들은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스승이 물질적인 면도 돌보긴 하지만 여러분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승이 밥을 두 공기 주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왜 세 공기를 주

시지 않을까?' 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만하면 충분하니까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80퍼센트 정도 배가 부르면 된 겁니다. 과식을 하면 배가 너무 불러서 피곤해질 것이고 수행에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각하려고 해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며 걸어다니거나 산을 오를 때 힘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그저 보통으로, 평범하게 하십시오.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말이예요.

만약 우리의 수행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엔 잘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가? 이 일은 중요한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이로운가? 진리에 부합하는가?' 매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자문한다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무슨 일을 하건 늘 스승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스승을 위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승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스승님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스승님은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의를 모두 스승에게 바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건 여러분이 나에게 여러분의 ‘몸’을 먹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게 하고 여러분의 ‘말’을 대신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몸은 스스로 움직여야 하며 말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좋은 일을 행하고 마음으로는 좋은 것

을 생각하며 입으로는 이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꾸짖을 때도 그를 이롭게 하기 위해 꾸짖어야지 화가 나서 야단치거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백일몽을 꾸지 말고 꿈을 꾸려면 좋은 꿈을 꾸십시오. 5세계의 꿈을 꾸고 5세계의 존재들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5세계의 행동 양식으로 행동해야 좋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청하이 무상사/ 1988. 4. 2. 포모사 신주 치아오통 대학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6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꿈을 가진 후 실현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성불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먼저 시간과 계획을 잘 안배하고 나서 천천히 이 계획을 현실로 바꿔 나가면 됩니다. 아직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지, 화장실은 두 칸, 거실은 하나, 침실은 세 개, 그리고 주방을 계획하여 결정해 놓은 다음 인부를 고용해 집을 짓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하고 바람과 자신감을 갖고 실행에 옮겨야 그 계획이 완벽해집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다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런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다

(원문 어울락어)

친애하는 스승님께,

오늘 스승님께 글을 올리는 기쁜 기회를 통해 2001년 11월 21일 입문한 후 지난 날 고달팠던 저의 삶이 행복하게 바뀌게 된 얘기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입문 전, 저는 줄곧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열아홉 살 때 병을 앓고 난 후 몸이 기형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저는 수년 동안 열등감에 빠져 사람들을 멀리 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방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으며 때로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내게만 불공평하신 하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의 동수 분들이 집에 오셨다가 제 상태를 보시고선 이것은 제가 과거 생의 업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과 때문임을 알고 나자 저의 슬픔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입문을 해야 해탈할 수 있다고 권하셨지만 저는 매일 2시간 반씩 명상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후 저는 마침내 입문을 해서 스승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제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겐 더 이상 열등감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인생은 무상하며 생로병사는 이 세상에 늘 있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워하던 마음도 사라졌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현실에 직면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매주 동수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면 이젠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기까지 합니다.

입문한 날부터 저는 제 인생이 여러 모로 바뀌었음을 압니다. 저는 이전보다 자신감이 많아졌고 좋은 나쁜든 어떤 일이든 모두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힘이 제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때로 우울해지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스승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되지요.

입문하고 나서 스승님의 축복과 은총이 언제나 저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제 삶은 즐겁게 변했습니다.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덕분에 제 삶은 행복해졌고 수행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제자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하겠습니다.

스승님을 매우 존경하는
투엿 쉬안 올림

시기 적절한 스승님의 선물

(원문 영어)

사랑하는 스승님께

스승님의 가없는 보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직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언제나 시기 적절한 스승님의 무한한 돌보심과 축복으로 저는 별다른 빛 없이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난히도 스승님의 축복이 시기 적절하게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스승님의 생신인 오늘, 친구에게서 그의 회사가 제게 6개월 간 계약직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 나중에 제게 맞는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의 생신에 이런 기회를 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저의 직업과 스승님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더 큰문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스승님의 생신을 맞아 스승님께 간청 드리건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위대한 사명에 보다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커지는 스승님의 참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하고 용기 있고 확고 부동한 도심(道心)을 갖고 스승님과 스승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1999년 12월에 입문한 후 아직까지 스승님을 직접 뵈지 못했기에 조만 간에 스승님을 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승님, 다시 한 번 생신을 축하드리며 스승님의 축복과 보살핌에 대해 가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가장 깊은 사랑을 드리며

2004년 5월 12일 영국에서

제임스 리 올림





업장의 무게



청하이 무상사/ 1991. 10. 1. 일본 (원문 중국어)

옛날에 아주 교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청소를 하다가 우연찮게 빗자루로 바퀴벌레가 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몹시 당황하며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이 업장을 가져가지? 어떻게 해야 이 업장을 씻을 수 있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는 죽은 바퀴벌레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선장수 여인을 보게 되었죠. “아이쿠, 이 나쁜 여자야. 매일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다니,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죄라곤 지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사고로 이 바퀴벌레가 죽었어. 이렇게 작은 죄를 지은 것 가지고도 난 이렇게 초조하고 이 죄를 어떻게 씻을지 고심하고 있는데, 당신에겐 어떤 일이 생길지 한 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그러자 생선장수가 말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난 이미 물고기를 많이 죽였지만, 당신은 여태껏 죄를 지은 적이 없더니 바퀴벌레 죽인 걸로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내게 주면 되잖아요! 그 바퀴벌레를 여기 생선이 가득 든 바구니에 넣겠어요. 자, 봐요. 이 바구니엔 죽은 생선이 이렇게 가득한데, 거기에 바퀴벌레 한 마리쯤 보탠다고 무슨 대수겠어요? 내가 당신 죄를 대신 받을게요!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죄가 없

는 거예요. 생선 바구니 속에 이렇게 생선이 많으니 하나 더한들 겁낼 것도 없어요. 당신도 겁낼 필요 없어요!”

이른바 ‘착한’ 여인은 매우 기뻐하며 죽은 바퀴벌레를 생선장수에 게 주었습니다. 생선장수는 그것을 생선 바구니에 넣었죠. ‘착한’ 여인은 죄가 없어진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 그 생선장수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훗날 두 사람은 같은 날 죽게 되었는데, 천사는 생선장수를 천국에 데려갔고 저승사자는 ‘착한’ 여인을 지옥으로 데려 갔습니다. 그녀는 몹시 당혹스러워하며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들, 실수한 거예요. 난 죄 많은 생선장수가 아니라고요. 당신들은 그 여자를 지옥에 데려 가야 해요. 난 평생 죄라곤 지은 적도 없는 착한 여자인데, 왜 나를 지옥에 데려가는 거죠?”

그러자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여인아, 실수한 게 아니다. 우리는 너를 지옥에 데려가야 한다. 네 이름이 진작부터 지옥에 등록되어 있으니, 자, 어서 가자! 그 생선장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 어째서요?” 착한 여인이 묻자 저승사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생선장수에겐 생선을 죽이고 파는 게 할 일이었다. 그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악의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지. 게다가 그녀는 신을 경외하고 매일 신을 숭배했으며 어떤 일을 하든 신의 도구로서 신을 위해 했다. 어떤 일을 할 때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신의 도구로서 신께 공양했기에 그 공덕으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반면 너는 자신이 바퀴벌레를 죽였다고 여겼다. 너에게는 ‘나’라는 게 있었던 거지! 또 무슨 좋은 일을 하든 그건 자신의 교만함과 의기양양한 마음을 위해서일 뿐, 정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너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겸손하고 진정한 수행자를 멸시했으며, 단 한 번도 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한 것이라고 여겼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며, 저 위의 신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경배한 적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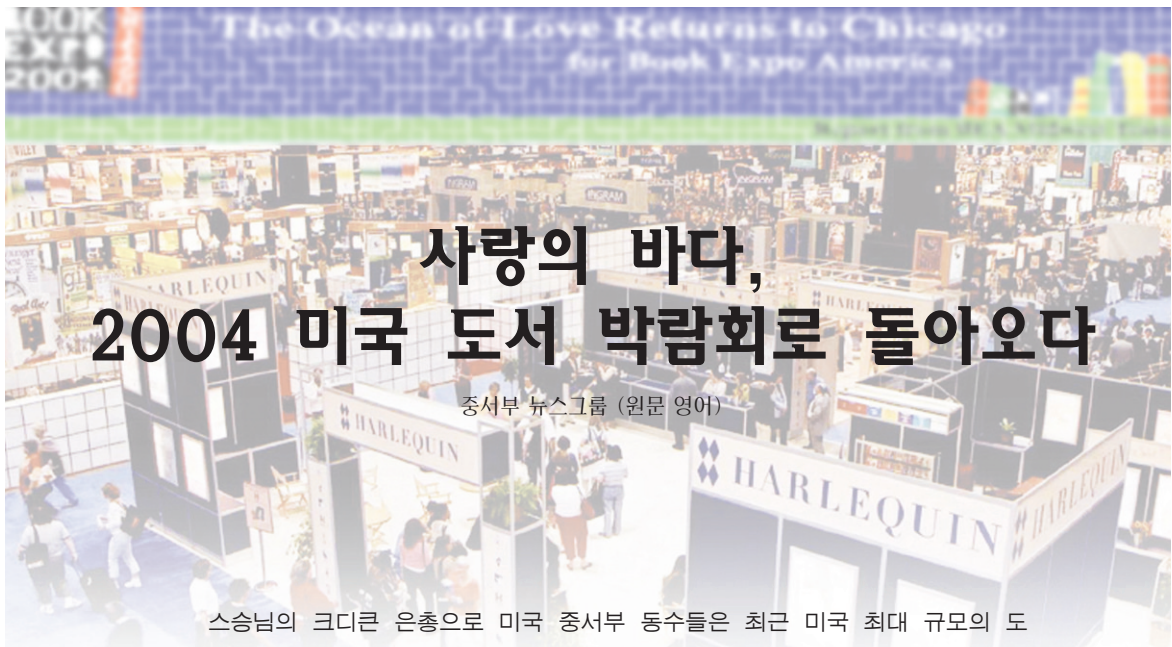
너는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신이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바퀴벌레를 죽이고도 그 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걸 봐도 그렇지. 하지만 그 생선장수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네 죄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녀는 네가 자유롭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네 대신 업장을 가져갔다. 그렇게 선량하니 천국에 갈 만도 하지. 자, 어서 서둘러 우리와 함께 지옥에 가자.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여러분더러 생선이나 고기를 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생선장수처럼 착하고 신을 믿고 다른 사람의 업장을 대신 가져가고자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수차례 얘기했듯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신의 안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런 정도로 삶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엉망이 되고 그 업장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신이 안배하신 하나의 도구로만 여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극소수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죄를 지었다면 겸손하고 참회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무아(無

我)의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니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공덕을 짓고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그 공덕을 자랑거리로 떠벌립니다. 그런 행위는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예요. 그건 단지 찬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 주기 위한 에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에겐 정말 사랑이 없으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한다는 생각도 없다면 그때는 정말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을 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 “보시를 해야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나면 무엇을 하든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하되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으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서둘러 자신을 숨기고 칭찬 받는 것을 겁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결코 여러분만의 공덕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여러분에게 어떤 공덕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는데 무슨 공덕을 주장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빌리고 빌려주는 돈조차 전부 신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교만을 떨겠습니까?



사랑의 바다, 2004 미국 도서 박람회로 돌아오다

중서부 뉴스그룹 (원문 영어)

스승님의 크디큰 은총으로 미국 중서부 동수들은 최근 미국 최대 규모의 도서전이었던 2004 미국 도서전에 참가해 평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던 꿈을 실현시켰다. 2004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시카고 맥코믹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세계 각지에서 수천 명의 전시인과 출판사, 작가, 그리고 3만 여명의 참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센터의 동수들은 행사 전날 맥코믹 컨벤션센터에 도착해 행사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동수들이 행사장 지하 입구에서 통행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경찰관이 동수들의 차를 막고선 즉시 판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아직 책 박스도 내리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당초 상당히 강경했던 그 경찰관은 스승님의 사진을 본 후 태도가 돌변해 매우 부드러워졌고 스승님의 법상을 가리키며 “저 분은 영적인 스승이십니까?”라고 묻기까지 했다. 이에 동수들은 그에게 전단지와 견본책자를 주면서 우리 부스에 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초대했다.

시카고 센터의 부스는 박람회 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통로에 위치해 있어서 매일 수천 명의 관심을 끌었다. 부스는 스승님 출판물이 아름답게 진열되고 고화질의 DVD가 상영되어 많은 내빈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중 떠나길 아쉬워한 한 부인은 팔을 문지르며 “여기 부스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하군요!” 하고 말했다.

도서전 두 번째 날에는 중국의 한 비구니가 우리 부스를 지나다가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선 깜짝 놀라며 즉시 전시 테이블에 서서는 공

손히 합장하며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집어 들었다. 그녀는 열심히 탐독한 후 “책이 정말 맘에 들어요.” 하고 말했다. 그녀의 신실함에 감명을 받은 사형사자들이 책을 선물하자 그 스님은 기쁘게 받아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절에 있는데 칭하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온 여성은 우리 부스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다. 동수가 관음법문을 소개하고 수행에 얹힌 많은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는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관해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 또한 자신이 직접 고른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선물 받았다. 그녀는 책을 받고선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거예요.”라며 매우 기뻐했다. 또한 우리 부스를 떠나기 전 명함을 주며 가능한 한 빨리 인터뷰를 가질 수 있도록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이징에 있는 출판사에서 온 여성은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 책들을 자기 출판사에 소개해 중국에서 광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견본책자도 주었다.

동수들은 전시회에서 다른 부스를 돌아보다가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자를 위해 창설된 ‘라틴 연예와 예술’이라는 TV 회사 관계자를 만

나게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우리와 스페인어로 짧은 인터뷰를 한 후 시청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스승님 책과 관음법문 사이트를 소개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6일에는 비디오 강연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방편법도 전수했다. 방편법을 배운 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지난 3월에 있었던 파리 도서전에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카고에서 우리 부스를 다시 보게 된 것에 놀라워했다. 예전에 기회를 놓쳤던 그는 이번에는 방편법을 배웠다.

강연장 앞에 ‘방편법 무료 전수’라는 포스터가 붙자 마침 지나가던 연인 한 쌍이 우리를 찾아와 스승님에 대해 질문했다. 동수의 간단한 소개를 들은 후 그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동의를 표하고 우리의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방편법을 배운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는 뉴저지에서 왔는데 이번 시카

고 여행이 아주 뜻깊은 여행이 됐어요. 이제 우리의 위대함을 발견했고 스승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서점을 경영하는 한 인도 사업가는 사업상 약속과 두 번째 비디오 강연회 시간이 겹치자 동수들에게 “정말 이 방편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며 방편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동수들은 그의 신실함에 감명 받아 그에게 별도로 방편법을 전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뿔 듯이 기뻐하며 자리를 떠났다가 두 시간 후 돌아와 방편법을 배웠다. 명상을 마친 후 그는 소감을 얘기했다. “저는 수년 동안 아주 고생스레 일해 왔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명상을 배워서 진아를 찾을 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이렇게 빠르고 멋지게 응답해 주시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에 입문식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입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서 박람회는 중서부 동수들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스승님의 은총으로 모든 준비 작업과 진행이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동수들은 이 독특한 기회를 통해 ‘봉사와 진리의 나눔’이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황금시대 원년에 진리의 길을 밝히다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4 세계 도서전이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선택 싱가포르 국제회의 전시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150여 개 출판사가 신간과 교재, 정기 간행물을 선보였으며 약 70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올해는 '종교 및 철학 전시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싱가포르 센터의 부스에게 할당된 자리는 행사장의 오른쪽 끝 모퉁이였다. 처음에는 위치가 안 좋아 보였지만, 의외로 부스 바깥쪽의 넓은 복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며 스승님의 강연과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 행사는 싱가포르에서 해마다 열리긴 했지만 동수들에게는 올해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스승님께서 올해 2004년을 황금시대 원년으로 발표하신 후 처음으로 갖는 흥법 행사였기 때문이다. 우리 부스는 유난히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전시되어 많은 부스들 중에 눈에 띄었다. 우리는 개방식 디자인 개념을 택해 칸막이나 테두리를 없애고 부스 가운데에 황금 연꽃 위에 앉아 명상하시는 스승님의 실물 크기 법상을 걸었다. 법상 주변에는 만세등을 배치하고 법상 앞에는 물이 계속 솟아 흐르는 작은 돌 분수를 놓았다. 부스 오른쪽에는 스승님의

그림이 전시되었으며 그 옆의 대형 PDP TV에선 스승님의 다양한 모습이 끊임없이 상영되었다. 많은 참관객들이 우선 스승님의 그 다채로운 모습에 이끌려 방문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그리고 부스의 왼쪽에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가 계속 상영되었는데, 그 중 1995년 싱가포르 강연에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는 방문객들의 호응을 보면서 우리는 최근 인류의 영성이 고양됐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남성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두 편의 비디오를 연달아 시청한 후 이렇게 평했다. "스승님의 말씀은 매우 이치에 맞고 뒤틀린 데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가슴에서 바로 우러난 진실된 말씀을 하십니다. 스승님 말씀은 매우 합당합니다. 스승님은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선택을 제시하시곤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진리를 찾아온 75세의 인도인에 대한 얘기는 더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는 10년 전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처음 얻은

후 종종 스승님께 기도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깊이 알고 싶어했다. 심지어 포모사를 방문하는 아들에게 스승님의 책을 구해 오라고 부탁하기도 했던 그는 최근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을 보러 왔다가 마침 싱가포르 센터의 도서전 참가 공고를 보고 우리 부스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제 신실하기만 하면 참스승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인도로 돌아가면 우리 센터를 찾아가 방편법을 배우겠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스승님을 만나러 도서전을 찾아온 두 자매도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4, 5년 전에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읽고는 싱가포르 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센터를 찾아가지만 센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간 후였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5월 29일에 도서전 광고를 보고선 서둘러 여동생과 함께 스승님을 뵈고자 도서전을 찾아왔다고 한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매우 실용적이고 따르기 쉽다고 여긴 그녀는 스승님의 책을 여러 권 구입하고선 “채식하는 건 문제없어요! 곧 싱가포르 센터를 방문할게요!”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 부스를 지나가던 두 젊은 여성은 잠시 한 사저와 애기를 나누다가 스승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고선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와 『감로법어』를 구입해 갔다. 그 중 한 여성은 스승님의 그림 ‘동굴’에 심취해 이 그림이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고 얘기했다.

‘동굴’에 마음을 빼앗긴 건 이 여성만이 아니었다. 한 신사 또한 그 그림에 완전히 빠져 한참 동안이나 서서 감상했다. 나중에 그는 동수에게 말하길, “매우 강한 진동의 물결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름 모를 힘은 저를 취하게 만

들었어요. 정말 신비롭더군요. 여러분의 부스에선 약간 어지러운 진동이 발산되는 게 느껴집니다.”라고 했다.

이번 2004 세계 도서전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싱가포르 동수들은 세계가 황금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신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험할 수 있었으며 신과 스승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 강하게 키울 수 있었다. 도서전 홍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이번 기회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한 사형은 “이것은 일이 아니라 은총이자 명예, 기쁨입니다.”라고 동수들의 느낌을 대변했다.





도마 복음서

고대와 현대 스승의 가르침들의 연결 고리

린든 사저/ 미국 오하이오 (원문 영어)

여기 있는 두 귀를 지닌 자들은 더 잘 들릴지어다! 사람의 내면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온 세계를 비추리라. 그 빛이 빛나지 않은 즉 어둠이라.

『도마 복음서』에서

뉴스잡지 81호에 실린 ‘당신은 모르실 거야-잃어버린 성서’에서 작가 제임스 빈은 오늘날 성경의 불완전성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며 글을 시작했다. “진정한 성경은 어딘가에 숨겨져 누구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대 유적지의 발굴 과정에서 성경의 유실된 부분들이 새로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어떤 곳에서는 율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성경들 중 한 부분은 오지 그릇 속에 묻혀 있다가 1946년 이집트의 한 농부에 의해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되었다. 콥트어(고대 이집트어의 계통을 따른 언어)로 쓰여진 이 필사본은 4세기 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학자들은 근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 문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에 넣어 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도마 복음서』가 포함된 이 문서가 발견된 후 예수의 새로운 말씀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미국 내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집대성한 책은 비공식적으로 “제5 복음서”라고 불리게 되었다. 『도마 복음서』는 기존에 출간된 어떠한 정식 성경판에도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여기에는 예수의 말씀으로 추정되는 114가지 격언이 담겨 있으며 이는 정전(正典)으로 인정받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속의 내용들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나아가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도마 복음서』 부분이 19세기 말 이집트의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됨으로써 이 복음서는 더 큰 권위를 입증 받게 되었다.

정전으로 인정받은 다른 복음들과는 달리 도마 복음서에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오직 예수의 가르침만 기록돼 있다. 작가 제임스 빈은 도마 복음서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신의 왕국을 발견하는 데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얘기한다. 그 중 몇몇 말씀은 성서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다음의 예문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영혼을 사랑하듯 너희의 친구를 사랑하라. 너희 눈의 눈동자를 지키듯 그들을 보호하라.’,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친구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가시는 알아보나 너희 자신의 눈 속에 든 나무둥치는 보지 못한다. 너희가 자신의 눈 속에서 나무둥치를 뽑아낼 때, 친구 눈의 가시도 똑똑히 보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스티븐 패터슨과 마빈 마이어의 영역)

이 구절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아래와 같은 도마 복음서의 말씀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계신 곳을 알려 주십시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바이니.’ 하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여기 있는 두 귀를 지닌 자들은 더 잘 들릴지이다! 사람의 내면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온 세계를 비추리라. 그 빛이 빛나지 않은 즉 어둠이라.’”
(스티븐 패터슨과 마빈 마이어의 영역)

예수의 이 말씀은 최근 뉴스잡지 148호에 실린 스승님의 강연(1992. 포모사)을 상기시킨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우리 내면의 빛은 무한하며 우리 내면의 평온과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포모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포모사 사람들에게만 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빛은 전세계로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고대와 현대의 스승들의 가르침과 사상을 이어주는 고리이자 신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를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 최근에 발견된 이 『도마 복음서』는 ‘공인된’ 성서를 읽을 때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마 복음서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우리는 빛에서 왔고, 빛이 생겼던 곳에서 왔다.”, “완전한 존재는 빛으로 가득하다.”, “내 입에서 들이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이 될 것이고, 숨겨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들이마신다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신의 우주적 목소리, 말씀, 소리를 관하는 관음법문 입문의 과정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도마 복음서』와 같은 경서의 발견은 예수의 생활과 그 가르침을 보다 완전하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21세기의 독자들에게 예수는 살아 있는 큰스승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면의 빛과 소리에 대한 명상을 통해 신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이해시켜 준다. 마치 오늘날 칭하이 스승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듯이 말이다.

관련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1. 뉴스잡지 81호-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ews/htm/081/n.html>
2. 『도마 복음서』 영역본- <http://www.earlychristianwritings.com/thomas.html>
3.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다른 많은 문건들도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도마 복음서는 그 중 하나로서 다음 인터넷 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다. <http://www.gnosis.org/naghamm/nhlalpha.html>

신의 존재 확률에 대한 검토

무상 진리에 대한 긍정

오하이오 뉴스그룹(원문 영어)

영국의 가디언 지는 최근 확률 이론을 통해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검토한 이론물리학자 스테판 언윈 박사(주1)의 연구를 기사로 다루었다.

언윈 박사는 동전 던지기 결과와 비슷한 가설로 신의 존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 50대 50의 확률을 부여했다. 이어서 그는 하나의 공식을 사용해 그의 가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지’ 혹은 ‘반대’의 증거 요소를 적용해 그에 상응한 결과를 유추했다.

1. 선(善)의 개념에 대한 인지
2. 죄악의 존재
3. 자연적 해악의 존재
4. 자연계의 기적
5. 자연계 밖의 기적
6. 종교적 체험

그는 위의 각 요소를 수치로 가감해 초기의 50퍼센트 확률에 적용시켰다. 이에 따라 양쪽에 적용된 인수 값은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률을 끌어냈다.

이러한 증거들은 두뇌에 확증의 느낌을 주어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언윈 박사는 불확실한 요소도 고려하기로 했다. 증거가 불충분하게 느껴지거나 이성만으로는 상황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생활 속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찾게 된다. 이 때문에 언윈 박사는 불확실성이 ‘우리가 신앙이라 부르는 틈새를 열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앙이 메꾸기에 꼭 알맞은 이 ‘틈새’는 신의 존재 확률을 계산하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일부 분이기도 하다. 신을 믿음 = 신의 존재 확률 + 신에 대한 신심

그렇지만 이 연구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성과 신심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공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는 게 많을수록 신앙심은 감소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성을 신심보다 우위에 두거나 반대로 신심을 이성보다 우위에 두게 된다. 언윈 박사가 사용한 공식은 대수 계산을 넘어 ‘신을 믿는다’는 것이 이성과 그보다는 좀더 추상적인 믿음이 결합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한다. 그래서 신의 존재 확률이 67%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수치의 격차는 신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에 기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많은 깨달음을 시사한다. 우선 과학적인 공식이 사용된 데다 ‘누구’의 신이 존재하는가가 아닌 ‘신이 존재하는가’를 연구 과제로 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교 신앙의 구애를 받지 않은 채 신의 존재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용적인 관점은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종교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과 상통한다.

언원 박사의 또 다른 통합적인 요소는 세속적인 언어로 영적인 의제를 풀어간다는 점이다. 사실 과학과 종교 간의 간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은 이 연구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간극은 '정교(政敎) 분리'의 개념에도 반영되어 기도와 같은 영적인 활동과 교육과 같은 사회적인 활동이 서로 어울릴 수 없도록 한다. 이 점에서 교회적인 언어보다 '사회'적인 언어로 신을 토론하는 언원 박사의 연구는 학술계, 종교 조직, 공공 부문에서 과거와는 차별된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점은 결론을 열어 놓은 이 실험의 특성이 실질적이면서도 어떤 결과를 강요하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신과 자신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살아 계신 스승을 모른 채 신의 존재에 대해 하나의 의문을 가질 때면 회의적이거나 두려움조차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연구는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이 황금시대의 시작에 걸맞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가디언 지의 기사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education.guardian.co.uk/higher/news/story/0,9830,1164892,00.html>.

주 1: 스테판 언원 박사 - 영국 맨체스터 대학 이론물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양자 중력 연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미국 에너지국의 기술관으로 임명되었다. 현재는 위성 평가인으로서는 화학 물질 누출이나 핵발전소 사고 등과 같은 재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방지책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언하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중국어 자막>

622 세상에 완전함을 가져오자

1998. 5. 6.-10. 한국 영동 센터 국제선오

내용 요약: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정말 자신을 잘 돌보라고 당부하신다. 제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해야 스승님이 자유롭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 DVD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명쾌하고 주옥 같은 말씀 또한 담겨 있다.

- 죽는 순간 세상에 집착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 스승님이 특별한 행사에서 동수들에게 고전의상이나 전통의상을 입으라고 요구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 예고는 어떻게 수행을 방해하고 스승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가?

이 밖에 스승님은 '살아 있는 동안 해탈한다'라는 것에 대해 일러 주시고 완전함을 추구하여 이 세상을 정토로 바꾸도록 가르치신다.

가장 귀중한 체험

위원장 사저/ 포모사 타오위안

나는 입문하기 전 기적에 가까운 체험들을 한 많은 동수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길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입문하고 난 후 내 체험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초조해지다 못한 나는 종종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일까?’ 하고 스스로 묻곤 했고, 날이 가도 이런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볼 때는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생겼지만 명상을 시작하기만 하면 압박에 가까운 기대감이 나를 좌불안석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정신적인 갈등이 서서히 가라앉자 그제서야 내가 처음 육식을 끊고 수행했을 때 맹세했던 게 생각났다. 당시 나는 수행을 결심하면서 이것은 어떤 환상적이거나 기적 같은 체험 때문이 아닌 채식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특히 스승님의 숭고하고 자신을 버리는 대장부의 기개와 바다와 같이 무한한 사랑에 경외감을 느끼곤 했었는데, 매번 이 생각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눈물이 난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삭막하고 이기적인 타이베이 사람 중의 일원이었다. 나의 마음은 이런 상황이 위대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게으른 타성에 젖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스승님의 숭고한 정신을 접하고 나서야 스스로 일어서라고 자신을 재촉하게 되었고 더불어 다시는 일반 대중을 핑계 대며 같이 휩쓸려 오염되는 일이 없어졌다.

관음가족에 들어온 후 스승님의 성스러운 사랑은 동수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게 강한 자극을 주셨고 부서질 듯 약하기 짝이 없는 나의 도심(道心)을 튼튼하게 키워 주셨다. 남들이 놀랄만한 체험은 없지만 나는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는 손에 잡히는 대로 스승님의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밝아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다. 또한 내 주변 사람이나 일, 사건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나의 굳은 예고를 일깨우는 새로운 깨달음이 된다.

지난날의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 지금의 나는 두려움과 의심이 없어졌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사랑과 밝은 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가장 귀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있으면 증명된다

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환자가 병원 침상에 누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담당 주치의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다른 의사들과 토론을 벌였지만, 아무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매우 걱정이 된 나머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 병은 좀 문제점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의사의 말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의사가 장담했습니다. “뭘, 약간은 그런 면이 있지요. 그들은 소견이 좀 다르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 진단이 옳다는 게 이미 증명됐답니다. 환자의 사체를 검사하고 나서요!”

유유상종

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두 정신과 의사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웃을 틈자 다른 의사가 물었죠. “아니, 대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새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계속 기어다녀서 그래.” 첫 번째 사람의 이 말에 다른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나한테 털지 말게. 알았어?”



깜박 넘어갔네!

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양반, 당신의 문제를 알겠어요. 당신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 항상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환자가 대꾸했어요.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제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거군요. 그런가요?”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이에 의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 예, 알겠어요. 당신은 내 말을 모두 반박을 하고 있는 거군요.” “아니오, 당신 정말 웃기는군!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야!” 환자의 말에 의사가 또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정상이고 미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오, 미쳤어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진전이 좀 있군요.”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52/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52/jk1.htm> (미국)



내면의 성찰은 상호간의 이해를 넓힌다

청하이 무상사/ 2002. 7. 21. 미국 로스앤젤레스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745

질문: 스승님께서 미래에는 인류가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스승님, 명상 수행으로 얻은 힘으로 세계를 그런 수준으로 고양시키고 사람들 간의 오해와 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스승님: 예, 물론이지요. 더욱더 명상하면 됩니다. (대중 박수) 좀더 내면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수준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

가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신실함이 있어도 그가 여러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능력이란건 언제나 불완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말을 누군가가 나가서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원래의 이야기와는 한참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숭배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으로 완벽하게 텔레파시로 의사 소통을 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인내하고 서로를 잘 견디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때로는 기분 나쁘거나 상대에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가족으로 돌아와 잘 지내게 됩니다.

스승의 힘과 융화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청하이 무상사/ 2002. 7. 21. 미국 로스앤젤레스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745 .

질문: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계획하기 전에, 신이나 스승님께 두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까? 스승님, 부디 제가 무지를 극복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

도록 도와주십시오.

스승님: 물론입니다. 신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스승의 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열어 받아들이십시오. 스승의 힘이 당신을 돕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 힘에 파장을 맞추세요. 그 힘과 하나가 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사랑으로 세계 평화를 증진하자

청하이 무상사/ 2002. 7. 21. 미국 로스앤젤레스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745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과 싸움, 자연 재해가 일어나서 저는 매우 슬프고 걱정이 됩니다. 명상을 더 하는 것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님: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와 있었던 경험을 또 다시 겪을까 봐 마음속에 사랑을 숨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에서나 우주에서 다른 존재들과 충돌해 몸과 마음, 감정에 상처를 주고받고 나면 이런 나쁜 경험들을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이 가슴에 남게 되지요. 그래서 상처받거나 절망할까 봐 걱정되어 마음을 열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우리가 항상 과거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처럼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개를 예로 들어봅시다. 아이들

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개를 야단치고 엉덩이를 찰싹 때렸어도 조금 있다가 다시 불러 사랑해주면 개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어린 아이도 그렇습니다. 즉시 달려오지요. 그들은 몇 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대부분 추억을 갖고 과거 속에 삽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현재로 가져오고, 그 현재는 다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시 과거가 되고, 우리는 항상 이런 불쾌한 일들만 기억하게 되므로 현재 이 순간에서는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행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속에 살지요. 예수는 이랬고, 부처는 저랬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이런저런 성인만 기억할 뿐 정작 자신이 성인이 돼야 하고 예수의 자녀가 돼야 하며 그들과 같은 경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은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다 잊고 과거의 묶은 상처와 나쁜 일들을 다 잊어야 합니다. 그 나쁜 기억에서 배우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해야 합니다. 꽃이 썩고 냄새나고 불결한 거름에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모두를 즐겁게 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과 싸움, 다툼, 충돌과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수행자이므로 이런 평화를 즐길 수 있으며, 어떤 문제나 슬픔을 겪을 때에도 평화와 만나는 방법을 아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잘해도 아직은 전세계의 슬픔과 오해, 전쟁,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더 큰 영향을 주고 더욱 고귀한 분위기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고, 전쟁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수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라

정하이 무상사/ 2002. 7. 28. 미국 휴스턴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5

질문: 스승님, 저는 마냥 행복합니다. 입문하고 나서 사고 방식을 바꿨더니 얼굴도 더 좋아지고 기분도 더 좋습니다. 저는 전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었습니다.

스승님: 예, 우리에게 그런 쓰레기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하루 종일 방해할 것입니다. 마냥 행복하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명상으로 얻은 온 힘을 다 기울여 그것을 밀어내십시오. “난 네가 필요 없어. 넌 불청객이야. 잘 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힘은 언제나 우리의 즐거운 순간을 훔쳐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일을 망치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거나 눈치 없이 굴고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분은 급작스레 변합니다. 누군가가 “넌 그렇게 해선 안 돼!”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면 좀 전까지 즐겁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왕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진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들면 바로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투명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그 상대는 그것을 알거나 보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리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시작한 후로 우리는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이 고스란히 다 보이고 어디에나 있으며 모든 이와 하나입니다. 이것이 신의식을 명상하는 훌륭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설령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해도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집니다.

질문: 맞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잘못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승님: 그래요! 당신은 즉시 자신을 바로잡게 되지요.

질문: 때로는 저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승님: 예, 맞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거나 뭔가를 손해 본다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아요! 당신이 진보해서 아주 기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른바 가장 ‘영망’인 동

수들까지 말이에요. 내가 때로 여러분을 나무라고 혼내긴 해도 내 마음은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내가 조금 엄하게 독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 아버지, 기타 모든 노릇을 해야 합니다. 내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알았죠? (스승님 웃음) 여러분을 심하게 대할 때도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야 하는 일이지요.



온 마음을 모아 내면으로 집중하면 외로움은 없어진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1. 싱가포르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5

질문: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스승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일부는 아직까지 고독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친구인 내면의 스승과 깊이 연계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스승님: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활동과 유희, 부정적인 힘들이 우리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서 우리가 내면의 자아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깨달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런 깨달음은 하룻밤 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간 오랫동안 수행해야 가능하

지요. 역설적이게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만약 우리가 어딘가에 혼자 산다면 얼마 지나서는 별로 외롭지 않겠지만, 우리가 도시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며 많은 이들을 알고 있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 주고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면의 자아에 좀 더 집중하고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행동에 집중한다면 그렇게 외롭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기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상태를 영적 수행의 경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시 바꿔 말하면 경지가 높아질수록 외로움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외로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독립적이 되거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려 하지 않는다면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면으로 향해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판단에 의존하거나 다른 이의 기대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으십시오. 그러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능한 한 그것을 고수하되 광신적이 되진 마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 문자 그대로 집착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불러올 것입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지요!



순탄한 삶을 위해 이완하고 융통성을 가지라

청하이 무상사/ 1999. 5. 6. 한국 영동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18

‘레미제라블’을 본 사람들이면 영화에 나오는 경찰관을 알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지요. 하지만 너무 완고하고 극단적이기도 해서 누구든 법을 어기면 뉘우치고 개과천선하고 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그 죄를 보상하더라도 이 경찰관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합니다. 상대가 어떤 대가를 치렀든 그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으면 자신도 처벌합니다. 우선 그는 시장이 나쁜 짓을 했다고 의심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곤 시장을 찾아가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청합니다. 둘째, 경찰관을 감동시킨 이 시장은 과거에 죄를 지었으나 나중에 훌륭한 박애주의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그를 계속 추적하며 다시 감옥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감동된 그는 마음속으로는 시장을 놓아주고 싶어하면서도 시장은 죄인이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시장을 놓아주고선 자신은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량해졌지만 예전엔 범죄자였던 전 시장을 놓아주었으니 자신이 법을 어기고 죄를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삶을 선택하십시오. 원한다면 극단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내 의견을 묻는다면 이완하고 자연스럽고 보다 융통성 있게 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순탄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완하거나 융통성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코스타리카 소식

스승님의 사랑이 빈민촌의 길과 다리를 보수하다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지난 2004년 2월 산호세 시내의 티바스 수르기스 덤프 지역을 방문해 사랑과 과자를 나누어주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50호 참조.) 방문한 동수들은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보도와 인도교가 그 밑으로 흐르는 더러운 물 때문에 무너질 지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비로운 스승님은 이 상황을 아신 후 즉시 다리 보수를 위한 기금을 보내 주민들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4월 말, 자비로운 스승님의 지시를 받은 동수들은 이 지역을 재방문해 환경을 조사한 후 아슬아슬한 보도와 다리를 개보수하기 위해 세 가지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계획을 크게 반기며 기쁨에 찬 웃는 얼굴로 도와주겠다고 적극 나섰다.

그 중 두 가지 공사는 보도 옆을 흐르는 질병을 옮기는 더러운 하수를 처리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정화조와 배수관을 묻

기로 했다. 세 번째 공사는 썩은 나무다리를 튼튼한 시멘트 다리로 바꾸는 일이었다.

지역을 조사하고 1주일 후 공사를 시작하자 마을의 부녀자와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이 모두 이 작업에 동참했다. (남자들은 낮에 일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밤에 와서 도와주었다.) 모두들 힘을 모은 가운데 각 공사 별로 30명씩 조를 나눠 일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커져갔고 환경도 점점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바뀌었다.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동포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승님의 은총에 감사드렸다.



보수 작업 전:



주민들은 다리도 없이 더러운 물로 가득 찬 웅덩이와 틈새를 걸어 다녀야 했다. 이 보도들은 겨울에 물 속에 잠기기까지 했다.

해결책:

40미터 짜리 파이프 배수관을 묻고 원형통 정화조를 설치해 더러운 물을 여과했다. 그 위를 모래와 자갈로 덮어 안전한 인도를 만들었다.



보수 작업 전:

주민들이 이웃 마을을 왕래할 때 이용하던 계단식 나무다리. 아주 위험하고 형편없는 상태였으며 다리 밑으로는 오물로 가득 찬 웅덩이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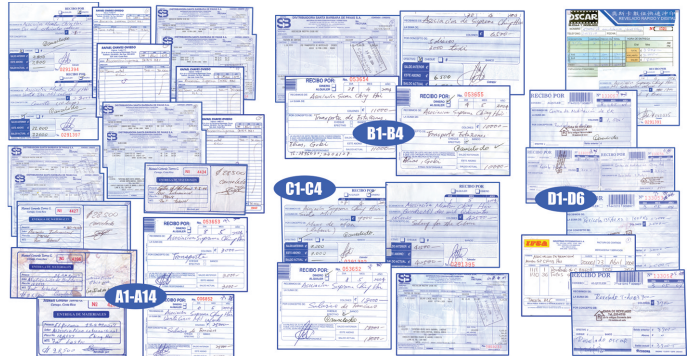
해결책:

해결책: 철과 돌, 시멘트 등의 재료로 튼튼한 다리를 건설했다.

칭하이 무상사 지원, 코스타리카 티바스 수르기스 덤프 도로 및 다리 공사 지출 내역

(단위: 콜론)

항 목	금 액	영수증 번호
건축재료	459,055	A1~A14
운송비	26,000	B1~B4
임금	92,500	C1~C4
문구	23,500	D1~D6
총액	601,055 (미화 약 1,401달러)	



아르헨티나 소식

도움을 받은 산타페 수재민들의 따뜻한 반응

파올라 G. 그라시엘라/ 산타페 (원문 스페인어))

2003년 4월 말, 산타페 북부가 이례적인 홍수 피해를 입었을 당시 칭하이 스승님은 즉시 구호금을 보내 동수들에게 어려운 수재민들에게 담요와 기타 필수품을 공급하도록 하셨다. 스승님은 이곳의 많은 어린이들이 맞는 신발이 없어서 홍수가 지나간 축축하고 차가운 진흙탕을 맨발로 다닌다는 사실을 아신 후 또 한번 기부금을 보내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사주도록 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지난 2003년 11월 산타페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산타페는 올해 2004년 들어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 대부분이 재건되었다. 산타페 시립 유치원 겸 유아원의 다니엘라 페레이아 원장은 감사 편지를 통해 수재민들에게 보내 주신 스승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페레이아 원장은 또한 산타페 센터를 방문해 관음법문 수행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공헌에 대해서

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산타페 센터는 동수들과 친척들이 모은 옷가지를 기증했다.

이번에 방문했을 때 페레이아 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부금을 받았던 한 가정에 스승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사진을 떼려고 하자 아이들이 “엄마, 안 돼요! 이분은 우리를 구

해주신 분이예요. 그리고 그 사진엔 신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면서 반대했다고 한다. 이 밖에 산타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한 주민은 동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스승님에 대한 소식을 물으며 자기 고장에도 단체 명상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산타페 시립 유치원 겸 유아원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고마움과 행복한 마음을 표하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동수들은 자선들이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고선 기쁨으로 찬탄해졌다. 수행의 길에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관련 기사는 144호와 148호를 참조하세요.)

감사 편지 

(원문 스페인어)

2004년 4월 29일 아르헨티나 산타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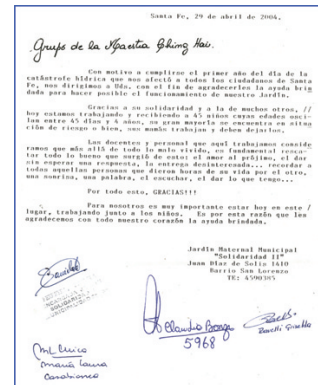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귀중

1년 전 산타페에 닥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은 저희는 귀 협회의 자비로운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희 유아원은 운영을 계속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분들의 조직적인 지원 덕분에 이제 저희는 예전대로 한 살 반에서 네 살 된 어린이 45명을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일 때문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 이 어린이들에게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곳 교사와 직원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귀 협회의 무아의 봉사를 통해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여러분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과 진지하게 듣는 태도, 가진 것을 베푸는 모습, 이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지원해 주신 여러분의 모든 도움에 가슴속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타페 시립 '단결 2' 유치원 겸 유아원
교사 일동

파나마 소식

사랑과 기쁨, 기적 속에 스승님의 생신을 경축하다

마리차 데 레온/ 파나마

파나마 센터는 사랑하는 스승님의 생신을 앞두고 몇 주 전부터 기쁜 마음으로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한편 이날 지역의 한 병원을 방문해 어려운 형편의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필수품들을 전달하는 사랑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동수들은 이번 활동 중 많은 스승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

이번 병원 방문 활동을 위해 한 사저가 신생아용 내의와 기저귀, 담요가 든 선물 꾸러미를 24개 준비했는데, 우리는 병원에 신생아가 몇 명 있는지 몰라서 선물 꾸러미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아기 용품이 가득 든 큰 꾸러미를 별도로 하나 더 준비해 갔다. 스승님의 안배는 완벽했다!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선물 꾸러미가 병원에 있던 스물 다섯 명의 산모와 그 아기들에게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동수들이 산모들에게 천국의 은총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 선물이 오늘 생신을 맞으신 스승님께서 보내셨다고 설명하자 산모들은 스승님께 크게 감사드렸다. 그 중 한 여성은 남편이 기저귀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고마워했는데, 우리는 그녀의 아기가 혈액 감염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는 특별히 진심 어린 축복과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랑의 활동이 끝난 후 동수들은 센터로 돌아와 스승님의 생신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친 후 스승님의 사랑과 동수들의 기대가 충만한 가운데 경축 행사가 시작되었다. 동수들과 초대받은 손님들은 먼저 스승님의 약력을 소개하는 '사랑의 길을 걷자' 비디오를 함께 시청한 후 계란이 들지 않은 채식 케



이크를 넉넉하게 받아 함께 나눠 먹었다. 그리고도 케이크가 남아서 손님들은 집에 가서 가족과 먹을 케이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여자친구의 초대를 받아 온 한 남성은 우리 단체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며 여자친구에게 우리 단체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했다. 그는 원래 방편법을 배우기를 주저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어했다.

또 그 다음날이 시험이라서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실망이 대단했던 어린이 동수 두 사람과 방편법을 수행하는 한 소녀도 센터에 나타나 모두들 놀라워했다. 알고 보니 선생님이 갑자기 그 다음 주로 시험을 연기했다고 한다.

이번 사랑의 활동과 스승님의 생신 경축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파나마 동수들은 시종일관 대단한 행복감을 느꼈으며 모든 것을 신께 맡겼을 때 만사가 순조롭고 완벽하게 안배된다는 것을 체험했으며 마음 속에는 평화와 사랑 받는 기쁨이 가득 찼다.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선물과 언제나 베푸시기만 할 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스승님의 헌신적인 모습에 파나마 동수들이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커져만 갔다. 우리의 삶 매분 매초를 축복하시고 최근 지구의 영성 의식까지 고양시켜 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계속 수행정진해 나가는 것만이 스승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에 보답할 길이라!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포모사 24시간 인터넷 TV 방송국-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us> (미국-다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http://www.godsdirectcontact.com/sb/index.html>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ejemplar>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레시페 상파울루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t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80-4087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e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tls1095@earthlink.net	
		mrleone@hotmail.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 파라과이				ekalbekim@yahoo.com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ec_py2002@yahoo.com.ar			georgiacenter@hotmail.com	
★ 페루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cuscocentro@yahoo.com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리마	센터	51-1-4716472		hawaiictr@hotmail.com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edyter@viabcp.com			DorothySakata@aol.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caominhtran@yahoo.com	
	punocentroperu@yahoo.es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Duchanh@aol.com	
	larv@terra.com.pe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살바도르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FNGUYEN@MAIL.STATE.KY.US	
	quijano_mmanuel@yahoo.es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 트리니다드 섬				jlfontenot@hotmail.com	
	Mr. Ray Alibocus	1-868-637-1054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alibocus@tsst.net.tt			MARYLANDCENTER@yahoo.com	
★ 미국			메사추세츠 :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shinemound@earthlink.net	
	kennynngoaz@hotmail.com			Ms. Gan Mai-Ky	1-508-791-7316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bobedj@cox-internet.com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캘리포니아 :				mading02000@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quach001@msn.com	
	tlilin54@hotmail.com		미주리 :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SanGabriel99@hotmail.com			MSteck5208@ao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콜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martin0999@hotmail.com			gchen@umr.edu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saccenter.ca@usa.com			croberts@lps.org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네바다 :		
	quanyinsd@juno.com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c_newjersey@yahoo.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JohnChou@ymusa.com	
	sfcenter@hotmail.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anawarskas@hotmail.com	
	Sophie.Lapaire@eng.sun.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dong@phys.columbia.edu	
	Edgar-Teresa@worldnet.att.net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Mr. Loc Petrus	1-510-276-4631		dcouch@rochester.rr.com	
	petrusl2k@earthlink.net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torahi@ureach.com			ohiocenter@yahoo.com	
플로리다 :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wisdmeeye@aol.com	
	Thaidbzad@msn.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오리건 :				Mr. Chu, Chen Pei	886-37-724726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가오송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 홍콩	센터	852-27495534
		oregon_center90@yahoo.com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joyandlove3@hotmail.com
		youping320@yahoo.com	★ 인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펜실베이니아 :		DiepAshleyPa@aol.com			shive@cal.vsnl.net.in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텍사스 :				Mr. Agus Wibawa	62-81-855-8001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wibawa001@yahoo.com
		jldawu@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달라스		tranduongdean@yahoo.com			smch-jkt@dnnet.net.id
		DallasCenter@yahoo.com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r. Tim Mecha	1-972-395-0225		Ms. Lie Ik Chin	62-21-6510218
		t.mecha@attbi.com			finance1@ueii.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water96@yahoo.com			hai@cbn.net.id
	Mr. Jimmy Nguyen	1-972-206-2042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DallasCenter@hotmail.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휴스턴	센터			yudi_wartono@telkom.net
		CHINGHAI_TX@sbcglobal.net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cadamson@houston.rr.com			smch_medan@hotmail.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cuc_le@sbcglobal.net			ahimsasb@indosat.net.id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Mr. Harry	62-31-594-5868
*샌안토니오		robert.yuan@hp.com			harry_1@sby.dnet.net.id
	Mr. Khoi Kim Le	1-210-558-6088	육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lethong@hotmail.com		t.adianingtyas@eudoramail.com	
버지니아 :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센터	1-703-941-0067			ya05@netvision.net.il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 일본		
		anhhlly@hotmail.com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divinalv@nth.biglobe.ne.jp
		liem_le23502@yahoo.com			81-470-209127
			다테야마	센터	tateyama_lg@yahoo.co.jp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benptran@aol.com			cal13840@pop07.odn.ne.jp
	Mr. Edward Tan	1-206-228-8988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와이오밍		edtan@usa.com			y-plus@f6.dion.ne.jp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한국		
★ 푸에르토리코			출판사		031-772-9250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	1-787-262-1874			chinghai@unitel.co.kr
		disnalda@caribe.net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1@kornet.net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유태인	02-795-3927
아시아				이지자	02-599-1701
★ 포모사					051-581-9200
	타이베이	센터	부산	부산 센터	chinghaibusan@hanmail.net
		886-2-2706-6168			
		tpe.light@msn.hinet.net		송호준	051-957-4552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황상원	051-805-7283
		shloh@ndmctsg.edu.tw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 태국		lawrance@thefinance.lk
	신현창	063-254-5824	방콕	센터	662-674-2690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bkk_c@hotmail.com
	이재문	032-244-1250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66-2-5914571
	김익현	053-633-3346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한선희	053-767-5338	콘캔	센터	66-43-378112
	차재현	053-856-3849	송크라	센터	66-74-447224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유럽***		
	김수동	042-254-7309	★ 오스트리아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김삼태	054-821-3043			sound@gmx.at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벨기에		
★ 라오스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비엔티안	Mr.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불가리아		gotske@yahoo.fr
★ 마카오	센터	853-532231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연락인 사무실	macau_center@email.com 853-532995			oldruslan@yahoo.com
★ 말레이시아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chinghaiplodiv@mail.bg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385-51-251081
		603-9287-3904	★ 체코		zeljko@mindless.com
칼라룸푸르	센터	klsmch@tm.net.my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Mrs. Marcela Gerlova	prague-center@chinghai.cz
		6-018-2413832			42-0-608-265-305
페낭	센터	pgsmch@pd.jaring.my	★ 덴마크	Mr. Thanh Nguyen	Chinghai@chinghai.cz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45-66-190459
★ 몽골			★ 핀란드		my@webspeed.dk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50422 baasandamba@yahoo.com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Ms. Anne Nystrom	hoanghanh@jippii.fi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358-9-793902
★ 네팔			★ 프랑스		anne.nystrom@kolumbus.fi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rclai@infonie.fr
		ajaystha@hotmail.com	아르테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포카라	센터	977-61-28455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tich.hung@infonie.fr
		neupanebishnu@hotmail.com	파리	센터	33-1-4300-6282
	Mr. Shiva Bastola	977-61-28255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독일		33-1-4376-1453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chinghai@singnet.com.sg			pureocean@web.de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 스리랑카					49-174-5265242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 영국	Ms. Klein Ursula	41-22-3691550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런던	센터	pnl@matters19.freemove.co.uk
★ 네덜란드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anet.weller7090@ntlworld.com
★ 헝가리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 스코틀랜드		
	Mr. Lux Tamas	36-304273364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Ms. Dora Seres	36-1379-1924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오세아니아 ***		
★ 아일랜드			★ 호주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 노르웨이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 폴란드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마이런베이/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 포르투갈			캔버라	Mr. & Mrs.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 러시아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 스페인			퍼스	센터	61-8-9242-1189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Ms. Lidia Kong	34-91-5470366	Mr. Ly Van Tri	61-8-9244-7661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 뉴질랜드		
★ 스웨덴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크라이트스트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그림

무한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전소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에는 감각과 느낌이 솔직하게 표현돼 있다. 그녀는 정교한 붓 놀림으로 인위적인 덧칠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녀의 기교와 화법은 일반 예술가들이 흔히 추구하는 외적인 세련된 미학을 뛰어넘는 본래의 순수함을 물 흐르듯 드러낸다. 만약 칭하이 스승이 자신에 대해 어떤 의혹이 있었다면 이렇게 순수하고 천진무구한 방식의 그림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데이비드 우~

영적 세계를 묘사하는 특별한 능력이 발휘된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은 종종 세인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영감과 깨달음을 준다.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독특한 표현 방식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이성적인 회화 양식과 차별화 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하고 충실한 그녀의 그림은 순수하고 낭만주의적이지만, 전달되는 메시지는 어김없이 그림을 감상하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칭하이 무상사는 정물화나 풍경화에서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대신 그림에 혁신적인 창의력을 쏟아 부어 소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시키며 스스로 창작의 즐거움을 누린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영적인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은 눈으로 보아도 즐겁지만 마음으로 보면 더 잘 감상할 수 있다.

그녀의 그림에선 인상주의 화풍이 보이긴 하지만 명암의 세련된 변화는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정규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칭하이 스승은 이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데, 이때 입체적으로 배합된 색채가 명암의 층차를 만들어낸다.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은 전체 구성을 놓고 볼 때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다. 굳



이 가까워서 자세히 볼 필요 없이 몇 발자국 떨어져 보면 그림의 긴장감과 색채의 통일 및 조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은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곤 한다. 예를 들면 ‘동굴’은 빛 알갱이들이 끊임없이 파도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다양한 색채는 여러 영적 경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빛인 듯하다. 또한 ‘법희 충만’에서는 그 에너지가 유동적인 힘이 되어 마술처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림 속의 꽃들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연상시키며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화려하게 배치돼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피안을 그리며’에서는 물질 세계의 압박에서 벗어난 휴식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이 그림의 구도와 색조에는 강한 압력과 부조화가 반영돼 있지만 생기 넘치게 굽이치는 강물이 이런 느낌을 교묘하게 누그러뜨린다. 대비와 긴장감이 강렬한 이런 그림들은 오히려 보는 이에게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나 이완되고 성찰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류의 칭하이 무상사 그림들은 독립적인 절개선을 갖추고 있다. 색채의 대비가 강렬하게 표현된 ‘돌들의 회의’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토론’, 그리고 기울어진 꽃병의 꽃들이 추락의 위협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두려움’ 등의 작품에서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 ‘천당화’와 같은 작품에서는 수평선으로 안정감을 나타냈으며 찬색과 따뜻한 색 계열의 색채가 선명한 배합을 이루며 지극히 조화로운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의 파스텔화 또한 매우 독특하고 순수하며 고상하고 부드러운 색채 속에 심원한 감정을 표현한다.

일반인이 오랜 기간을 연마해 그림을 그리지만 칭하이 무상사는 주로 자신의 지혜와 풍부한 내적 세계에 대한 체험에 의해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녀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처럼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미술 기법을 통틀어 그 어떤 기법으로도 칭하이 무상사가 자신의 충만한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주: 데이비드 우 - ‘우진화’를 창시한 혁신적인 화가로 타이베이 외곽의 담수(淡水) 노가(老街)에 화실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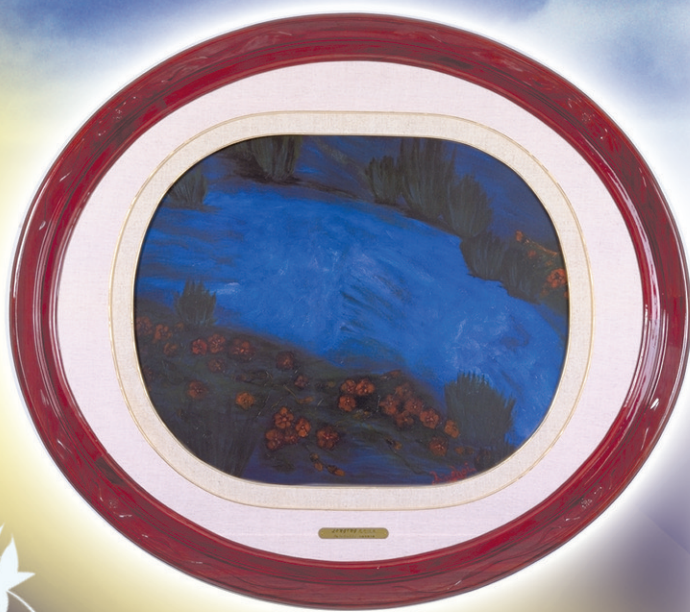


창의의 무상사의 그림

두려움

바람

동굴



피안을 그리며



천당화

칭하이 무상사의 새로 나온 CD

〈원문 영어〉

CD-E728 자비로운 생각의 축복

2001. 12. 26.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내용 요약: 이 단체명상 말씀 중 스승님은 다음 질문에 대해 설명하셨다.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면 에고가 나타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일본 과학자의 물분자 실험은 가피력의 베일을 벗긴다.) 다른 사람의 정신적, 영적인 방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2001년 9월 11일 사건 당시 동수들은 어떻게 구조 작업을 수행했는가? 스승님의 자비로운 행적은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가? 스승님은 이 DVD에서 한국 여성들이 엄숙한 전통과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5개 국어 자막〉

662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

1999. 6. 9. 영국 런던 강연

내용 요약: 1999년 코소보에 전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칭하이 무상사는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곤경과 위험도 무릅쓴 채 동수들의 초청에 응해 유럽 18개국 수도를 방문하며 신의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종 종착지인 런던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코소보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그녀의 유럽 순회 강연은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 멋진 강연에 담긴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신을 볼 수 있는가? 이전에 지구가 문명의 정점에 달했을 때 은하계 우주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고도의 문명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과학과 영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에게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가? 왜 깨달은 스승의 화신은 신의 가장 높은 형태의 화신인가? 업장과 운명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영어 + 중국어 자막〉

603 신과 하나되는 기쁨으로 들어가라

1997. 4. 26. 싱가포르 단체명상

내용 요약: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란 이치는 무엇 때문인가? 국민에게 채식을 장려하는 지혜로운 정부는 어떤 복지를 베푸는가? 부처와 마야의 경쟁, 긍정과 부정의 대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고와 욕망, 야심을 없애는 비결은? 부처가 '스스로 등불을 밝혀 자신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돈을 버는 긍정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이 DVD를 통해 유머와 재치가 넘치고 독특하고 명쾌한 스승님의 설명을 들어보시길!

